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리의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향하여 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크리스천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계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사도행전 7:18-19a)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85호 2012년 5월 26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눈앞에 고난보다 미래 희망에 승부 건다!

월드, 중동권 민주화역풍 후 새 광야생활에 나선 이집트 크리스천들의 출애굽 보도

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 정권퇴진 이후 정권의 실세로 등장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동족인 콥트 크리스천들을 오직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해 시나이산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이집트 교회 지도자들은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위협들에 맞서 중동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교인들을 선량하고 착한 이웃으로 인식시키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도하고 있다.

월드(Wilderness)지는 새로운 광야 생활에 나선 이집트 크리스천들의 광야 여정을 생생하게 보도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The New Egyptian Wilderness).

이집트에서는 최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이 발흥해 이집트 민주화의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인들의 우려와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무바라크 정권의 퇴진은 바로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참다못한 시민들의 시위들로 연결됐기 때문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슬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집트인들의 환심을 사게 됐다.

따라서 현재 이집트 국회에는 테러 조직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슬림형제단'(The Muslim Brotherhood)과 이슬람식 정치 체계인 '샤리아(Sharia) 규범'만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는 살라피(Salafi) 무슬림들이 과반수 이상인 무려 74%가 포진돼 있다.

결국 이들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콥트 크리스천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와 제재를 이집트에서 자행하고 있다. 즉 이집트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알라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믿는 동족들은 더 이상 이집트인이 아니라는 논리로 콥트 크리스천들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칼 폴러 대

표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무바라크 대통령 이후 점점 대법해지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속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정부군조차 이러한 폭력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 오픈도어는 2011년 박해국가 순위를 발표하면서 이집트를 19번째로 꼽기도 했다.

폴러 대표는 "박해받는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박해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며 "박해자들의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오픈도어와 같은 세계 NGO 단체들의 보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는 콥트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슬림들의 인구 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창세기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가뭄을 피해 이주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집트에서 콥트 크리스천들은 전체 인구 중 12%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거의 90% 정도가 모두 무슬림으로, 이집트에서 종교는 날 때부터 정해지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집트에서 소수자인 콥트 크리스천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된다. 따라서 이집트인은 날 때부터 무슬림이어야 하는데, 콥트 크리스천들은 그 기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나마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의 개종은 전면 금지돼 있다. 결국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방에 적들로 가득한 방에 감금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로에서 목회하고 있는 조지(가명) 목사는 "

비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한다. 따라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카이로나 대도시에서 무슬림 정권의 다가올 압제나 박해에 겁을 먹고 떠났지만 오히려 카이로나 나르시에 있는 콥트 교회들은 무바라크 정권퇴진 이후 정치적 격변기에 두려움에 질린 무슬림들에게 교회당을 개방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리더여야 한다!

리더십저널, 실천신학 대가 옥턴과 마이어의 크리스천 리더십원리 소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리더십은 제자됨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벧전2:21) 하셨다고 말씀했다. 크리스천 리더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부정함을 제거하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인인 신분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그 과정은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의 진실성을 지키는 중요한 일부이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까지 않게"(고후6:3-4)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리더로서 모든 올바른 기법과 훌륭한 기술 같은 엄청난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만일 교만, 시기, 탐욕, 정욕, 분노, 욕심, 게으름 혹은 그밖에 다른 죄악들이 우리 안에 함부로 자라게 내버려둔다면 우리의 창조적인 영향력은 감소되거나 심지어 사라지기까지 할 것이다.

이끄는 제자들은 순결이란 고상한 체하는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깨끗하고 거룩하며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기억

성령의 열매를 가꾸라

성령의 열매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크리스천 리더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리더들이 그러한 열매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크리스천 리더들의 불완전함과 실수를 더 잘 참아 주기 때문이거나,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리더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열매 맺음'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영향력이 크다.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 기쁨, 평화 같은 것들을 몸소 체험할 때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수준에 다가가게 된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 교감을 맞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의 특권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콥트 교회에 대해서 아시나요?



3면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역의 연속성 기대돼야



7면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 황의영 목사(SBM 대표)



16면

인터뷰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장로교회)

Mission Bazaar

2012 춘계 선교 바자회

일시: 2012년 6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지하신교실 및 주차장



INVITATION TO THE HAPPINESS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행복에의 초대

주후 2012년 6월 10일(주일)

장소 퀸즈장로교회

www.kapcq.org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박규성
교회전화 718.886.4040 / 홈페이지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제36차 총회와 임원에게 바란다



원중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36차 총회가 뉴저지 중북부 셰라톤 호텔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지난 36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과 총회 발전에 수고한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다. 또한 작은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준비한 준비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 구성된 임원진을 향한 기대감으로 몇 가지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집단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총회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특정 그룹에 의하여 세워진 기관이 아니며, 또한 소속 노회나 학연 지연의 어떤 사적 이해관계 위에 세워진 조직도 아니다. 총회는 피로 닳고 사신 각 지역의 한 교회 한 교회 위에 세워졌으며, 지역 교회를 돕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사명이 총회에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감사한 일이지만, 항상 역기능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와 노회가 서로 돕다 보면 진리나 법의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소수의 이해관계에 집중된 집단이기주의 양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가 깊어 교단이 성장할수록 우리 모두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명실공히 다양한 모든 교회와 회원의 총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할 때마다, 짧은 시간에 각 노회에서 올라온 각종 안건을 다루다보니 지나치게 현실 문제 해결에 급급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27개 노회와 600여 교회, 1천 2백여 목사 회원의 상회로서 이들에게 법적 행정적 지원 의무를 다하려다보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총회에서는 진리수호나 전파 의지는 물론이요 장기적인 하나님나라 발전을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 교단만의 특색 있는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 목회적 비전을 제공하며, 나아가 장단기적인 교단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총회는 모일 때마다 과거 수습이 아닌 미래제시형 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차세대대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단이 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차세대 목회자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차세대 목회자들에게는 그들만이 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지만, 그 세상을 열수 있는 발판은 여전히 우리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제 적극적으로 차세대 목회자들을 영입하여 36년의 대를 이어 교단을 발전시킬 꿈을 꾸게 해주어야 한다. 영어가 편한 회원 목사들을 위해 노회 하나 만드는 것으로는 고맙지만 부족하다. 좀더 적극적으로야 한다. 교단이 인정하는 미국 신학교를 찾아가 교단실명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목사자격 및 학력고시를 치를 때 차세대 수험생을 좀 더 배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각 노회 산하 신학교 재학 중인 목사후보생들을 적극 멘토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무엇을 하든지 차세대대를 위한 배려 없이 미래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에 쫓겨 안건을 다루다가 '잔무'라는 이름으로 임원들에게 숙제가 주어진다. 짧은 일련 임기이다. 행정과 법의 잔무만 다루다가 회기를 마무리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성숙하고 비전 있는 총회를 만들어 나가기 바라는 마음 가득하여 주제넘게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무슬림극단주의자 공격 속 무방비 노출

(1면에서 계속)
다시 말해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역할로, 무슬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다. 실제로 콥틱 교회들은 저소득층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마디로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무슬림들은 좀처럼 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미 무바라크 정권에 속아 살아왔고 현재 정

은 어떻게 하면 국가에 기여하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그만큼 콥틱 크리스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소수자"로 낙인찍혀 이방인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집트에 종의 신세로 왔다가 결국에는 바로(왕) 다음의 권력과 영광을 얻었던 사실을 현재 이집트 크리스천들은 일종의 계시(?)처럼 수용하고 있다. 7년간의 혹독한 가뭄이 지나가면 7년간의 풍요로운 축복이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이집트 콥틱 크리스천들은 현재 황폐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

격변기 이집트...정치적 소수자서 훌륭한 시민으로 전환 고민 지역사회 신뢰/인정받는 것만이 광야 콥틱크리스천들의 선택

가정을 위한 무료 보육원 프로그램을 종교와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공동체의 활약은 정권을 잡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정치 논리와 선전으로 왜곡된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권의 실세로 등장한 무슬림형제단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호시탐탐 쿠데타를 벌일 가능성이 있는 군부도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치적 격변기이자 과도기에서 이집트 크리스천들

따라서 다가올 그러나 언제 바뀔 줄 모르는 정권의 박해를 피해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신뢰와 인정을 받는 크리스천이 되는 길만이 새로운 광야 생활에 접어든 콥틱 크리스천들의 선택이 되고 있다.

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된 광야 생활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주셔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듯이...

콥틱 교회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집트의 콥틱교는 17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로 주후 40년 경 전도자 마가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됐다. 세계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의 하나인 콥틱교회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541년 칼케돈 회의에서 단성론자로 낙인찍혀 로마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왔기 때문이다.

콥틱교회는 그들의 기원을 서기 248년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디오클레시안 로마 황제시대의 박해로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641년에 이집트가 이슬람교도들이 아랍인들에게 정복당한 후 이슬람교의 수많은 박해 속

지려 물려드는 사람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84세인 슈누다 교황은 아직 정정하다. 그는 설교에 은사가 있어 카이로 중앙에 있는 콥틱 대성당으로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가 이끄는 성경공부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든다. 그는 어느 때이건 성도들이 교황에게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 최초의 교황이기도 하다. 콥틱 교회는 성 마가를 그들의 초대 교황으로 여기고 있다.

콥틱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가난한 콥틱 교인들과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께 받은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

원을 재건해줄 것을 부탁 받았다. 대부분의 건물은 붕괴돼 있었고 주위의 땅 또한 방치돼 있었다. 32년이 지난 지금의 마카리우스 수도원은 농업 프로그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고 수도사들도 100여명이 넘는 100여권의 콥틱 신앙문서들을 발견해냈다. 근래에 콥틱교회 안에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성령운동과 성경공부에 대한 노력 등이 있어왔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



류 상류지역의 시골에는 교회 없이 이슬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주어지는 보상에 현혹되

교황의 권위와 지도력 . 수도원적 영성이 교회 지탱하는 힘

에서도 오늘까지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데 콥틱 그리스도인들의 순목에 새겨진 십자가 문신은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엄격한 예배의식과 콥틱 그리스도인들을 응집케 하는 교황의 권위와 지도력 그리고 사막에 은둔하며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배출한 수도원의 영성은 오늘날의 콥틱교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된다. 콥틱 교회의 교황인 바바 슈누다(바바란 이집트어로 '아버지'란 뜻이다)와 마카리우스 수도원의 '마타'가 바로 그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콥틱 정교회의 교황 슈누다가 교회의 성소에 들어갈 때면 주교와 사제들은 축복을 받기위해 교황을 만

나는 수도원적 영성(마타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마타는 초기 교회 선배들의 엄격한 연구에 기초를 두고 영적인 발전을 도모했다. 그러나 수도원에 파묻혀 콥틱 기독교 문서 발견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행에만 관심을 갖는 그에게, 콥틱 사제들은 호감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항상 콥틱 교황 선출에서 제외되다가, 1959년 사이릴 6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고 나서야 협력이 이뤄지게 됐다. 사이릴은 개혁적인 수도사 출신은 아니지만 마타를 높이 존중했다. 그는 재직기간동안 교회를 쇠신하는데 힘을 쏟았다.

1969년 마타는 6명의 고령의 수도사들만이 있는 마카리우스 수도

는 콥틱어로 된 성경을 읽거나 기도문을 암송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의 감동과 열매가 없다. 더구나 교인을 빼앗길 것을 염려하는 지도자들은 개신교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일강 중

거나 무슬림 이성을 결혼을 통해 개종해야할 상황에서 쉽게 신앙을 저버리게 된다. 지금도 하루에 3-40명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고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8(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 및 오픈컨퍼런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모든 회원님들께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제 4회기 정기 총회 및 이어 개최되는 오픈컨퍼런스(주제: 21세기 여성목회자 리더십)를 다음과 같이 소집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새로운 회기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6월 18일(월) - 6월 20일(수)
 - 장 소: Stony Point Conference Center
17 Crickettown Rd. Stony Point, NY 10980
(845) 786-5674
 - 대 상: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원, 여성목사, 전도사, 신학생, 목사사모
 - 문 의: 총무 이미선 목사 (718-744-5868)
이메일: meesonree@gmail.com
 - 등 록: 회계 전희수 목사 (646-270-9771)
컨퍼런스 숙식비 \$200, 5월 31일 이후 \$230
- 등록비는 반환되지 않음 (All Payment are non-Refundable)-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회장 김금옥 목사

제4회기 회장 및 부회장 입후보 등록 공고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회기 회장 및 부회장 후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 장 후보 이미선 목사

부회장 후보 전희수 목사

(선거권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 하신 회원에게만 있습니다.)

주후 2012년 5월 18일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이은혜 목사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역의 연속성 기대

선교한국, 39개 회원단체 동의한 "21세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 발표

6월이면 방학을 맞는 한인교회들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방학을 맞아 선교지로 단기선교를 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단기선교는 항상 가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현장 선교사들 간의 아름다운 삼위일체형 협력과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단기선교를 가거나 선교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선교사들에 커뮤케이션과 하나된 목적의식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 최대선교단체인 "선교 한국"은 지난 4월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단기선교를 위해 '21세기형 단기선교여행 표준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단기선교를 가는 모든 교회나 단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미 선교한국 39개 회원단체들이 표준 지침서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 지침의 골자만을 소개해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한인교회들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단기선교여행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사역의 연속성 가운데 실행되어야 한다. 선교지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사역이 이뤄져야 하고, 선교지 문화와 생활수준을 고려해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모형을 추구해야 한다.

21세기 교회공동체의 선교에서 발견하는 단기선교 현상은 부인할

해 줄 것이다.

"21세기형 단기선교 표준지침"은 한국 내 선교단체, 지역교회 그리고 기타 관련 단체에서 한 달 이하의 기간 동안 실시되는 선교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그 내용은:

△단기선교여행의 목적과 방향, 태도 △단기선교여행의 준비, 사역, 사후관리에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구성해 확실한 역할 분담 △필요 경비 모금시 문제발생 요소 최소화 하는 등 단기선교 현장에서 학생과 헌신을 포함한 영적 준비를 균형 있게 실시해야 한다.

단기선교 사역 현장에서는 △개방지역과 창의적 접근지역, 제한지역을 구분해 안정성과 효과성을 구분 △사역의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과감한 포기 △테러와 정치적 폭력에 대비한 활

국 전 선교지에서부터 준비 △단기선교여행이 선교훈련, 후원, 선교사 헌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개체교회의 경우 단기선교여행을 전문선교기관과 협력 △평가의 결과에 대한 비밀원칙, 성실성, 정확성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결국 한 번의 단기선교여행이 교회와 선교현장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선교한국파트너스"는

한 번의 여행이 교회와 선교현장을 새롭게/힘들게 할 수도 있어 분명한 목적과 방향, 태도/출발전 준비, 현장사역, 사후관리 확실히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다. 그러나 단기선교여행은 훈련의 부족, 참가자들의 헌신의 부족, 성경적 이해의 부족, 물량위주의 패권주의적 공세, 안전문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세계화되는 21세기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선교여행은 단기간 실시되는 선교의 방식으로서 많은 제약이 있지만 힘과 물량, 조직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소규모적이고 다양하며, 성령에 의존하는 선교방식의 틀을 제공

세부 지침으로는 △사역활동과 삶의 모습이 문화적으로 선교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는 헌신 △사역의 주체인 참가자·지역교회·선교단체·선교현장 동역자가 상호 협력하는 헌신 △사역의 내용과 목표를 달성에 있어 연속성과 책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헌신을 핵심가치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출발 전 준비단계에서는 △선교훈련을 반드시 실시 △선교지에 대한 문화·역사·언어·정치 등 철저한 지역연구 △최적의 인원을

동, 스트레스관리, 갈등해소 등의 고충처리와 관련한 정책과 절차 준비 △위기관리에 대한 훈련 실시 및 대표성 있는 위기관리기구와의 긴밀한 협조 △사역의 내용과 방식 결정, 실행에 있어 기준과 원칙 준수 △선교지의 조건과 필요에 맞춰 전문성과 은사로 사역할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사후관리에 있어 △사역 평가에 대한 장기적 안목 △단기선교여행 이후 진행 될 사역과의 연속성 추구 △사역보고 및 사후관리는 귀

교회공동체의 선교여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돕길 원한다. 따라서 측은 각 교단선교부와 지역교회들이 표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 및 프로그램과 대안 등을 준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동 표준지침서는 선교한국파트너스 측(ymchoi@missionkorea.org)으로 메일을 보내면 응답메일로 자료를 받게 된다.

(1면에서 계속)
자신을 매일 기록히 구별하라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기록해져야 한다고, 즉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구별되고 드러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셨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표현했다(딤후1:9). 예수님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눅9:23).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길을 따르기로 매일 그리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 앞에서 있으며 누구를 섬기는지 기억하라

그런 놀라운 순결과 능력을 가진 신 주님을 알 때 자신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우리는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마28:18)가 예수님께 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누리는 모든 권력과 영향력은 그분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언젠가 그분은 우리에게 말해주신 자원과 관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점검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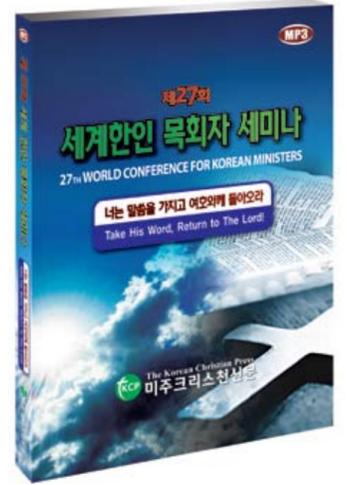
따라서 그분의 제자 된 우리로서

는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란 감사와 경외함과 거룩한 목적이 한데 어우러진 가운데 리더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3:1).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이 리더로서 당신의 기준을 높게 유지시켜주고 있음을 알게 된다.

사 고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CD(MP3) 발매



본 미주크리스천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금란교회에서 개최한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9편 전체가 2장의 CD(MP3)로 나왔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5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해 열정과 성의를 다해 교회부흥과 땅끝 복음 전파에 대해 고민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6강의와 3회의 저녁여성집회의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총 소요시간 24시간. 2개의 CD로 묶어 가격은 20달러.

강사는 김홍도, 소강석, 권태진, 황의영, 천성덕, 감기원, 조일래, 송용걸, 이영섭, 이정현, 김승욱, 홍민기, 조일규, 김규동, 송규식 목사, 본지 발행인 장영목 목사로 강의 한 순서대로 되어있다.

또 제 26회 목회자세미나와 평신도세미나 CD 2벌도 함께 발매한다. 27회와 함께 총 4장의 CD를 합쳐 30달러에 판매 한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20달러(제 27회 목회자세미나)
30달러(27회 & 26회(평신도 포함) 우송료 별도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제 33회 졸업식 및 학위 수여식

33rd Annual Commencement of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일시: 5월 26일 오후 1시

▶ 장소: 나성 열린문교회

1925 Wilshire Blvd. LA., CA 90004

213-413-1600

졸업예정자 명단

- BACS 고창근 김미순 김순애 김에스터 노정순 문순옥 심종석 엄정일 윤미라 이경호 이문식 장태석 전인기 한체니퍼
- M.Div. 강상묵 고형균 고효근 김용영 김재프 박우현 양용분 오선화 유해영 윤문섭 윤유섭 이근수 이상용 이영길 이재성 이혜람 이창숙 정명숙 조영주 최경록 최영일 허경렬
- MACS 고영옥 오다니엘
- ECE 김도희 변성희 이신영

2012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기독교문학사(B.A.C.S.) - Under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고졸, 이와 동등학력 소지자, 세례교인

기독교학 석사(M.A.C.S.) - 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대졸, 학사 학위, 이와 동등학위 소지자 및 학력자

목회학 석사(M.Div.) - Graduate Program

입학자격 - 대졸 학사학위, 동등학위 소지자 및 학력자

유치원 원장, 교사 자격 프로그램

Preschool Director & Teacher Certificate Program

입학자격 - 고졸, 이와 동등학위 소지자.

등록기간: 2012년 7월 25일(수) ~ 2012년 8월 15일(수)

개강명성수련회: 2012년 8월 20일(월), 21일(화) 오후 7시

개강: 2012년 8월 20일

유학상담: 김남을 대학원장
입학상담: 나 벤자민 교무처장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Email: iruskapc@yahoo.com

총장 황은영 박사 이사장 오영종 박사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아름다운 문화

‘해장버스’(hangover bus)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의 해장을 돕는 이색 버스가 있다는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듀크 의대에서 교육받고 14년간 의료계에 종사해온 마취과 의사 제이슨 버크가 2명의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s)와 함께 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라스베가스 유명 호텔 앞에서 영업을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 버스를 운영하려면 130달러의 비용이 들며 숙취 해소를 위한 정맥주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구토 예방과 비타민 치료를 위해 150달러의 비용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주중에 맞게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

나 이를 이해하고 바른 술 문화를 갖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래 전 성지순례 후 로마유적지를 돌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보이던 장소 옆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동그런 통이 있었는데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그 통에 구토를 한 후 다시 가서 음식을 먹었다는 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같은 향락문화로 인해 강대했던 로마는 멸망으로 치닫는 원인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향락 문화는 목욕탕 문화입니다. 단순한 목욕이 아닌 매춘까지 이루어지는 향락의 공간으로 이용되게 되는 문화는 로마를 더욱 병들게 한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것은 ‘남중독설’입니다. 남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인체에 미치는가 하는 것은 요즘에도 왕왕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로마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쓰는 납 성분의 파이프를 통해 납 성분이 섞인 물을 흡입했고, 또 납으로 만든 컵, 납으로 만든 요리냄비, 여자들이 얼굴화장에 썼던 납으로 만든 분 등이 납중독을 초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사람들은 포도주를 매우 즐겼는데, 로마시대에는 포도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납을 입힌 냄비에 끓인 포도시럽을 첨가하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납이 포도주 속에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로마남성들의 인체에 퍼진 납성분은 불임증을 유발시켰고, 따라서 로마 인구는 말기로 갈수록 격감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즐겨하던 로마인들의 건강은 물론 나라까지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방탕한 문화는 그들을 병들게 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문화, 경제, 정치, 군사는 철물같이서 결코 무너

지지 않을 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로마도 결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제위기를 유발한 원인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집을 사서 그곳에서 재투자, 2차 용자를 얻어서 흥청망청 써버린 데 원인이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중국에는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변에 어느 분은 집을 몇 채씩 사서 그곳에서 2차 용자를 얻어 세계의 각 도시를 방문하고, 고급 승용차에 돈을 몰 쓰듯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택했던 것은 파산신청입니다. 그가 빌렸던 많은 은행돈들은 고스란히 국가의 빚이 되어버리고 만 셈입니다. 그런가하면 생각만 해도 존경스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일이

나, 사회봉사의 일은 앞장서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도 자신의 옷과 자신을 위한 용품은 절약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이나 단체, 사회, 나아가서 국가가 잘못된 문화에 젖어 버리면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문화가 뿌리 내릴 때 그 사회는 아름다워지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문화 자체가 향락을 산업으로 하는 도시이지만 모든 것이 힘들어 사회적인 불만으로 격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으로 뿌리내린 이 나라가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믿음의 나라 말입니다. 대통령이 동생애를 찬성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듣는 지금의 미국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한없이 쓸쓸하게 합니다.

푸/ 른/ 초/ 장

장성춘 목사
(안암제일교회 원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그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3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다(살전5:18).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 7가지를 말하고 있다.

기를 좋아해야 한다. 아픔은 아버지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해서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축복을 받았고(창27:25),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주시기를 원했다(창32:26).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들의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①기도해 드려야 한다. 항상 강건하게 기도 열

지 않는다. 2. 저회끼리 화목하라(13절) 부모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것처럼 불효스럽고 보기 싫은 꼴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큰 죄는 없다.

141:3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했다. 우리가 공황을 출입할 때나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갈 때는 몸수색을 받고 들어간다. 만약 흥기가 있으면 다 압수된다. 우리들의 말도 잘못 놀리면 흥기가 되기 쉬우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④남을 비판하지 말라(마7:1).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다. 3.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14절)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육신이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약한 양이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대하라는 것이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 종살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형들끼리 다투지 말라고 위로했다(창45:24).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후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해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용서해주고 그 가정을 파괴하지 않았다. 다윗 왕도 사울 왕이 계속 잡으려고 병력 3천 명을 거느리고 잡아 죽이려 했지만(삼상24:2) 끝까지 왕의 명예를 존중하여 여겨 주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 5. 항상 기뻐하라(16절)

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잠15:17-18)는 말이 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장수하고 행복한 삶이다. 6. 쉬지 말고 기도하라(17절) 기도는 쉬어서는 안된다. 신앙인에게는 호흡과 같은 것이어서 기도가 끊어지면 벌써 죽은 신자가 되고 만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한다.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나이다”(삼상12:23)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겼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족, 나 개인과 자식을 위해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다. 7. 항상 감사하라(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 때라도 남의 더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가난이란 불편한 것뿐이고 범 죄는 아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지도자를 알아주고 너희끼리 화목하고 약한 자를 붙들어 주며 항상 선을 좇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살면서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기원한다.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12-18

1.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를 알 아주라는 것이다(12절).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는 장로(목사)를 말하는 것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표자로 축복한다”(정지4장3조)로 되어 있다.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6:27).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처럼 축복기도 받

심히 할 수 있도록 ②순종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힘든 일을 시킬 때도 있겠지만 잘 순종해야 한다. 장로고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하는데 정치 구조는 잘못되어 있다. 교회정치는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인 신주(神主)주의가 되어야지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싸움이 많고 분과가 생긴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국내 개신교단은 290개나 된다. 이중에 특별히 장로교단 수가 가장 많다. 신주정치나 감독정치를 쓰는 교단들은 잘 관리

너무 가깝게 지내도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어 싸우기 쉽고 너무 멀리 해도 좋지 않다. 사람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교인들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라고 한 말이 있다. 화목하는 방법은 ①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남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좋게 봐주라(빌2:3). ②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다. ③서로 화목하려면 말을 적게 하라. 시편

못하는 것처럼 약한 자는 혼자 일 어날 힘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다친다. 그러므로 붙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병으로 육신이 약한 자와 영적으로 신앙이 약한 자가 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 오셨다고 했다(눅5:32; 19:10). 4. 항상 선을 좇으라(15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일소일소 일로일로(一笑一小一怒一老)란 말이 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다는 뜻이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과 불행이 좌우된다. 1억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갖고도 불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잠언에 보면 “여간(如干) 채소를 먹으며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

밥(BaB, Background of Bible) 하는 장재일목사의 명쾌한 성경해석책이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다시 보는 **바레복음**

원저 장재일 504면 / 18,000원 (17-19판) 683면 / 25,000원 (14-25판) 신국립인양

성경의 절기를 잘 알고 싶다면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서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절기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적 상황, 성전의 제사의식을까지도 알기 쉬운 토대로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성경의 절기에 대해 이해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 책에서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밥하면서 보는 성경의 절기

유월절에서 오순절까지

장재일 목사

- 휴신신대위원장
- 에부살렘대학성경철리역사학과에서
- 현성지대학PhD 과정
- 현세이원교회집회목사
- 현한국어사서역언구연구원
- 현이스라엘집회역사학박사

SEOUL 서울국제도서전 BOOK FAIR 2012

6. 20. - 24. COEX A/B홀

www.sibf.or.kr

• 한글언어연구소 출판, 출판유통사 • 홈페이지 www.urman.co.kr • 주소 서울영등포구로동 184-3 • 전화 022747-1004

• 출판유통사



돈 때문에 세상이 또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빛이 문제이다.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심지어는 국가들도 빛 때문에 휘둘린다. 한국이 경험한 IMF와 같은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리스도 인하여 EU가 다시 휘청거린다. 총선을 실시한 그리스도 국가 EU와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그리스도 국가 유로존을 벗어날 가능성 때문에 그렇기 아닐까 불안한 유럽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또 다시 저축은행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문제로 온 나

제 해결법을 말씀하신다. 먼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이다.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돈이 우리의 마스터로 주인 노릇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다. 맘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서 돈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는 것이나, 지혜로운 재정적 결정을 하는 것 자체도 이기적이고 죄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부는 여호와 의 주시는 복이라고 했다(잠10:22).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더 풍성히 돕기 시작해야 한다(딤후 5:8, 잠언13:22).

셋째로, 물질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자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옛날처럼 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이는 것이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 먹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처지에 있으면, 위의 2가지 원리를 실천하여 여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3가지 옵션을 생각한다. 돈을 주는가? 훈련을 시키는가? 아니면 게으른 사람이 깨닫도록 고생하도록 놓아주는가로 고민을 한다. 지금의 고생이 장래로 보아서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려는지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명하신다.

넷째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는 일하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없는 날들 혹은 그렇게 길게 일할 수 없는 날들을 위해

자동차를 현금으로 사면 그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적게 지불을 한다. 자동차를 살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유하게 보이기 위하여 구매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빛을 지게하고 그 사람으로 재정적 어려움의 수렁에 더 깊게 빠지게 한다.

빛은 사실 남을 속이는 것이다. 빛은 우리가 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막는다. 도리어 잠언은 우리가 가장 최선의 것을 즐기고, 최고로 비싸고, 크고, 비싼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부유하다 한다. 그들이 저축하고 또한 지혜롭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즈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중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

재정상담가의 제안은 분명하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이기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고, 천천히 소비하는 것이다. 저축을 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빛을 지는 것 보다 훨씬 더 낫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이정현 목사

나성서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yahoo.co.kr

Q: 요즘 여성 성공공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유대인 남자가 여자를 결혼 대상으로 취하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한 총각이 우연한 기회에 한 처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그 처녀를 사모하고 밤으로 생각하며 그리워하다가 결국 결혼하여 일생을 같이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이 총각이 결혼을 하려면 그 처녀 집에 찾아가서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말하자면 처녀를 사는 셈입니다. 둘째, 그 아버지는 돈을 보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한 연회를 열게 됩니다. 셋째, 이때 중요한 것은 신랑이 될 청년이 신부가 될 처녀 앞에 놓인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그 앞에 밀어 놓는 것입니다. 만일 처녀가 이 남자와 결혼할 뜻이 있으면 그 잔을 들어서 마시고 마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시집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가 됩니다. 만일 처녀가 그 포도주 잔을 들어 마시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조마조마하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청년은 처녀가 그 잔을 마시는 순간 너무 기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넷째, 그러면 청년은 아버지의 집에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곧 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데려가겠다고 말하고는 나갑니다. 그때부터 청년은 자기 집 옆에 조그마한 신방을 만듭니다. 다섯째, 신부는 신방 맛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어느 날이

유대인 결혼풍습, 예수재림 시 혼인잔치와 같아

든지 밤에 신랑이 오면 바로 입고 나가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유대인들 풍습으로는 신랑이 밤에 와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여섯째,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오면 친구들과 함께 나가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후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크게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결혼풍습을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혼이야기로 시작하여 결혼이야기로 마칩니다. 창세기 1장에 인류 최초의 결혼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 예수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루셨고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흘리신 보혈의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만 나와 예수님과 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풍습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14:2-3).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바른 행실의 흰 세마포를 준비하고 어느 때라도 오시면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재림신앙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빛 문제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라가 시끄럽다. 미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계최대의 기업으로 뉴욕에 본사를 JP모건 채이스&컴퍼니는 미국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번 거액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뉴욕타임스 등은 적어도 20억달러(약 2조3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국제신용 평가사 무디스가 대형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월가가 휘청거리고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돈 때문에 걱정이 많다. Clase Bell은 현대인이 고통하는 5가지 돈 문제를 지적했다. 1) 빛 2)실업 3)과소비 4)파산 5) 깨져버린 은퇴연금 등이다. 은퇴를 위해서 준비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생활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절대 빈곤의 문제로 고통당한다. 아프리카의 대륙의 2/3는 절대빈곤 속에 있다. 개인적으로도 돈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긴다. 이혼의 원인 중에서 돈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다. 교회들도 무리한 건축을 시도했다가 어려운 경제로 현금이 감소하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왜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겪고 있는가? 어떻게 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돈문

물론 부의 축복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신 상이 아니다(잠12:11).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하여 부를 주신다 했다(잠14:23). 게으름은 가난하게 하지만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한다(잠10:4-5, 20:4). 게으른 사람은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24:30-34).

성경의 말씀이 제안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일조를 명령하신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매해 소출의 십분의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심분의 일은 절기에 참여하여 공동체를 나누는 일로, 삼년에 한번은 또한 구제를 위하여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교사들을 훈련하고, 우리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중요하다(말3:7-12, 고전 9:13-14, 고후9:7).

둘째로, 물질로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다른 가정을 돌볼 수 있을

서 계획을 해야 한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말한다. 선인은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준다(잠13:22). 부 모라고해도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을 끼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잠21:20, 27:18, 31:25, 눅19:12-26).

다섯째로, 우리의 노동의 열매를 즐겨야 한다.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즐기는 것은 축복이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하고 추수한 다음의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예수님의 첫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성경은 웃고, 춤추고, 평화를 때가 있다고 하신다(전3:1-8; 잠13:25, 14:24, 15:6, 31:31).

그렇다면 성경은 빛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빛은 종이 되게 만든다(잠22:7). 성경은 빛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빛은 우리의 목의 닻과 같아서 우리로 밤에 쉬지 못하게 한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압한다.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13:8) 하셨다.

빛은 유혹이다. 빛은 우리가 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누구든지

비하지 말라.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지 말라. 미래를 위하여 돈을 저축하라. 잠언의 원리는 비록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도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동일하다.

성경이 말하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를 얻는 길은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고, 개인적인 희생과, 인내와, 자기 통제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잠10:22).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가난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다(눅19장).

우리는 돈 문제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돈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돈문제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하고 존경받을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잠13:20).

재정 압박의 계절 속에서 성경적 재정관리법으로 빛의 노예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의 생활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Oct 22-Oct 26 (10월 22-10월26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Oct 29-Nov 2 (10월 29-11월2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Professor

온라인 강의(8주간)

Doctoral Courses (박사과정)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 Miss, Students(필수과목) & D, Min, Students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and Growth(교회개척과 성장방법론)
For D, Miss, Students(선택과목) & D, Min, Students
Dr, Tom Julien &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MA Courses (석사과정)

MIN Bible Study Methods(성경공부 방법론)
Dr, Mark Soto / Dr, Stephen Park

MI 511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세계종교의 이해)
Dr, Thomas Stalter / Dr, Stephen Park

본교 소개 및 특전

1. 74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J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선교학 석사학위를 인터넷으로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전과목 온라인 강좌

- 영어/한국어 강의
- 이수회점: 36회점 (12과목)
- 대상: 목회자, 선교역자, 사모, 장로, 권사, 집사
- 특전: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지원시 특혜

모집과정

- 석사과정(M.A.)
- 석박사 통합과정
- 박사과정(D.Min., 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8335), 574-377-2819(한국어)
E-mail: parkro@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방글라데시의 티페라(TIPERA)

대부분의 티페라족은 인도의 트리푸라(Tripura) 지역에 살지만 방글라데시에도 약 72,000명이 거주한다. 방글라데시의 티페라족은 치타공 산악지방(Chittagong Hills Tract district)에 사는 부족민이다. 이 지역은 낮은 산들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빼빼한 열대 밀림으로 덮여있다. 티페라족은 티프라(Tipra) 혹은 트리푸라(Tripura)라고도 불려진다. 대부분은 그들의



모국어인 티페라(Tiperah)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방글라데시의 주 언어인 벵골어(Bengali)를 배우고 있다. 한때 티페라족은 현재의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독립국가였으나 18세기부터는 외세에 지배당했다. 처음에는 인도의 무슬림에 의해 지배 받았고 다음에는 영국,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 그리고 1971년부터는 방글라데시에 의해 지배 받았다. 1960년대부터 티페라족의 본토는 과도한 인구의 방글라데시 평원으로부터 이주해오는 벵갈리 정착민들로 넘쳐났으며, 티페라족은 계속 감소해 그들 자신의 영토에서

소수민이 되어가고 있다.

삶의 모습

티페라족 대부분은 여러 종류의 농사에 종사한다. 과거에는 산림의 일부분을 벌채하고 그것들을 태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 화전 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런 방법이 오랫동안 산지의 높은 지역에서 수행됐으나 오늘날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런 방법을 억제하고 티페라 족들이 저지대에 농사짓도록 장려했다. 이들은 면화, 참마(yams), 멜론, 호박, 옥수수(maize), 망고(mangoes), 오렌지, 파인애플, 그리고 주식인 쌀을 재배한다. 또 소, 물소, 돼지, 염소, 양과 같은 가축들도 기른다.

티페라족은 대부분 계곡의 강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거주한다. 부유한 가족들은 기와지붕에 나무로 된 집에 살기도 하지만 대체로 진흙이나 대나무로 지어진다. 전통

적으로 티페라족 남자는 티번과 허리를 두르는 간단한 옷(loincloth)을 입으며 결혼한 여자들은 스커트만 입는다. 남여 모두 은 귀걸이를 하고 여자는 팔목, 발목, 목, 코, 머리카락에 보석으로 장식한다.

티페라족은 족내혼 혹은 족외혼 모두 허용한다. 대개 부모들이 결혼을 주선하고 신부는 신부값(bridle price)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부는 신부의 집에서 살면서 그녀의 가족을 위해 결혼 후 최소한 2년을 일한다. 자기 가족을 위한 집을 마련할 때까지 수확된 곡물의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받는다.

티페라족은 단독 상속양식(unique inheritance pattern)을 따른다. 장남은 자동적으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할 모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가정을 떠나면 그는 상속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결국 유

산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에게 돌아간다. 딸들과 다른 아들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신앙

티페라족은 명목상으로는 힌두교인이나 관습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존재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정령숭배자(animist)들이다. 이들은 또한 수많은 미신적인(shamanistic) 관습-이는 신들과 악마들의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불, 숲과 같은 자연의 여러 신들을 숭배한다. 이들은 오즈하스(ojhas)라고 불리는 무당(shamans, 제사장)이 자연의 영혼들과 함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티페라족은 극히 미신적이어서 연이 지붕에 내려앉거나 까마귀가 지붕에서 울거나 불탄 곳에 집을 지으면 불운하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티페라족은 흔들리는 물질적 영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나라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의료서비스가 열악하고 문맹률이 높다. 주기적인 태풍과 홍수는 광범위하게 사망과 파괴를 가져와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힌두이즘과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은 티페라족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 현재 네 개의 선교단체가 이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으나 기독교인은 매우 적다. 언어는 약 26개의 방언으로 나뉘어 있어서 성경번역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만이 이 티페라족의 삶을 억압하는 권세를 깰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신생아, 소수계가 백인 첫 추월

미국 신생아 가운데 백인이 아닌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인구학적으로 미국이 역사적인 티핑포인트에 도달한 것. 미 인구조사국은 17일 2010년 7월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1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라틴계와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등 소수민족 비율이 50.4%를 기록해 백인 신생아 비율(49.6%)을 앞섰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다. 2010년 조사에서 소수민족 신생아 비율은 49.5%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구학자인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앞으로 수십년 안에 미국이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구구성비가 바뀌면 미국의 경제와 정치뿐 아니라 정체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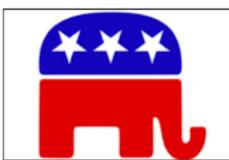
현재 미국 백인 인구는 63.4%(약 1억9750만 명)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르면 2042년에는 5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인구학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소수민족 비율은 2010년 36.1%에서 지난해 36.6%로 증가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이 16.7%인 약 5200만 명으로 가장 많다. 가장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소수민족은 아시아계로, 3% 증가한 1820만 명을 기록했다. 프레이 박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인구 가운데 소수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92%가 넘는다.

미국 50개주와 1개 특별구(워싱턴 DC) 가운데 소수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은 하와이 주(77.1%), 워싱턴 DC(64.7%), 캘리포니아 주(60.3%), 뉴멕시코 주(59.8%), 텍사스 주(55.2%) 등 5곳이다.

공산권 이민자 공화당 지지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뉴욕에서 소련 쿠바 베트남 등 공산권 이민자들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

로 나타났다. 뉴욕에서는 민주당에 등록된 사람들이 공화당 보다 4배 이상 많고 뉴욕에서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부터 민주당에 대한 충성을 배운다고 한다. 당연히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뉴욕에서 압승했다.



하지만 이 대세를 거스르는 뉴욕커들이 있다. 소련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을 더 지지하고 있다. 뉴욕에는 약 35만명의 소련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는데 이들 중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을 찍은 사람은 55%로 오바마(45%)보다 많았다. 당시 뉴욕에서 오바마 대 매케인의 투표율은 3대 1인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또 소련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뉴욕 브링턴 비치, 맨해튼 비치 등에서는 공화당 출신 후보들이 지역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소련 출신 이민자들은 왜 공화당을 더 지지할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8일 이들이 소련 시절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79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타티아나 바자르는 처음에는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대형 식당의 주인이 됐다. 그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본주의 때문"이라며 "공화당이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했다.

1978년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온 아나톨리 울터는 기계 노동자로 일하다 지금은 모피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은 '사회주의자 정신상태'를 갖고 있다"며 "이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공짜 돈과 사회주의적 기관에 의지하길 원한다. 그들은 사업가들이 이를 위한 돈을 대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련시절 국가통제에 시달렸던 이들은 민주당이 미국을 국가통제로 끌고 가고 있다며 그것은 자신들과 미국에 위협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소련 출신 이민자로 공화당의 미트 롬니를 지지하고 있는 아카디 프리드만은 "나는 공산주의 아래서 자랐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경제 파괴를 가져온다. 소련정부가 그렇게 사람들을로부터

돈을 가지고 가서는 다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까닭에 소련 공산주의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 출신 이민자들이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향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시오(Tear down this wall!)"라고 연설한 것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소련 출신 이민자들처럼 공산주의를 경험한 다른 이민자들도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산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온 쿠바와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 1959년 쿠바가 공산화된 후 미국으로 대거 이민 온 쿠바 출신 이민자들은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2008년 대선에서 63.6%가 공화당의 존 매케인을 찍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으로 온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도 역시 공화당 편이다. 이들은 2008년 대선에서 67%가 매케인을 지지했다.

미 하원, 아프간전 지속 승인

미 하원이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지속을 승인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03표 대 반대 111표로 아프간으로부터 미군 및 군 계약자들을 안전하고 질서있게 철수"시키는 데만 예산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투임무를 신속히 종료시키기 위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9.11테러가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해외에서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여론은 크게 약화됐다. 지난주 발표된 AP-Gfk의 여론조사결과 전쟁에 대한 지지여론은 사상 최저로 1970년대 베트남전에 대한 지지도와 동등했다. 이 조사에서 아프간전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으며 6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수정안을 발의한 바버라 리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은 의회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서 의회가 미국인을 끝까지 응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파들은 미국인이 전쟁에 피로를 느끼고 있지만 급작스런 철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의 맥 슌베리 의원은 "우리가 너무 빨리 철수하면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돌아와 더 많은 미국인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표결은 하원이 6천 429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아프간으로부터의 신속한 철군 대신 아프간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아프간에 8천800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미군 전투 병력을 최종적으로 철수시키길 원하고 있다.

"북한 인육 섭취사건, 식량문제 심각 중기"

연합뉴스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를 인용 18일 북한에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증언을 통해 확인됐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르 피가로는 지난 16일 발간된 통일연구원 보고서 인용, 최근 몇년간 북한 당국이 인육을 먹는 혐의로 최소한 3명을 처형했다고 전하면서 정부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증언을 토대로 식인 문제를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2009년 중국과의 접경지역 양강도 혜산에서 한 남자가 인육을 먹는 혐의로 처형된 사건을 언급, 당시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폭등한 이후 심각한 식량 문제가 발생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 공동작성자 중 한 명인 한동호 연구원은 북한 내 식인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국제위기그룹(ICG)의 대니얼 핑크스텐도 "식인 문제가 금기사항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대규모로, 또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 피가로는 인육 섭취에 관한 탈북자들의 증언은 여러 시인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1990년대 대대기 이후 북한의 식량분배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음에도 지방에서는 심각한 만성 영양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2회 목회자를 위한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

1. 일 시: 2012년 6월 22일(금) 오전 10:00-12:30
장 소: 영림교회 (담임 김필식 목사)
29-05 162 St. Flushing, NY 11358 (718) 939-8278
1부: 예배, 2부: 강의 (1) 김필식 목사(UTS 학장) (2) 유경옥 전도사

2. 일 시: 2012년 6월 24일(주), 7월 1일(주) 오후 2:30-4:00
장 소: 새생명선교교회 (장숙희 목사)
New Life Mission church
45-57 149 St. Flushing, NY 11355 (347) 256-4222
강 의: 유경옥 전도사

회 비: 무료 (교재, 간식 일절)
참가자격: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및 평신도 기독교 가정사역 지도자 등

연락처: (347) 235-0918, (718) 939-8278 * 이메일이나 전화등록 바랍니다.
Email: sookokart@gmail.com

- 주 최: 청교도복음연구회 (회장 김필식 목사 Ph.D)
- 주 관: 청교도복음가정선교원 (원장 유경옥 전도사)

청교도 가정선교원 기금마련을 위한 유경옥 그림전에 초대합니다.

- 주 제: "천개의 연평도"
The Floating Yellow Artificial Islands, Called 'A Thousand Yeon Pung Do'
- 기 간: 2012년 6월 22일(금) - 30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 장 소: 영림교회 (29-05 162 St. Flushing, NY 11358)

오픈 리셉션: 2012년 6월 22일(금) 오후 12:30-2:00

주 최: 수곡미술선교회 (회장 유경옥 전도사) sookokart@gmail.com
연락처: 미국: 46-42 215 Pl. 1B Bayside, NY 11361 (347) 235-0918
한국: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국 APT 102-401 (010) 2816-3475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89. 성경의 공금증들(5) - 창조 주간의 하루는 얼마나 길었을까?

대학생이 되고 성인 되어 어린 자녀들을 가졌을 때도 창조 사건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까마득한 옛날 옛적의 일이란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창조가 그렇게 멀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도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다고 들었지만 그 의미와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마치 신화 속의 한 신이 그렇게 한 것일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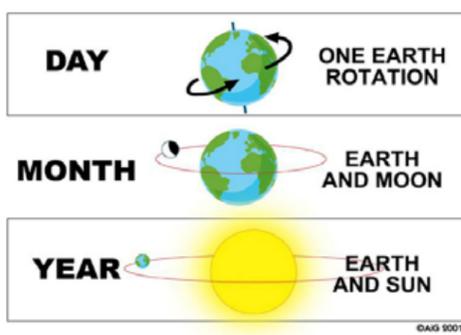
고등학교 때는 진화론의 내용이 교과과정에 제법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진화론의 내용들은 하나의 가설로 인식되던 것 같다. 개구리 발가락이 다섯 개, 사자 발가락도 다섯 개, 박쥐 날개에 있는 뼈도 다섯 개, 그리고 사람의 손가락도 다섯 개가 된 것이 진화의 증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주장이 성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은 있다. 그렇지만 삼엽충이 5-6억 년 전 캄브리아기, 물고기가 5억 년 전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공룡은 2억 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연대까지 곁들여 있어서 사실 같았고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 못 했다. 또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성경과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잘 몰랐다.

그러나 진리도 아닌도 사실도 아닌 지식이 수십 년 동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는 이보다 훨씬 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인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야말로 전설이 되어버렸다. 나는 전설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주의 역사가 세속에서 말하는 진화론의 역사로 진행되었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악과 고통을 창조한 못된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창조자가 이런 못된 성품을 가졌어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 들여야 한다. 사실은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백만 년

하루 24시간 길이는 지구가 360도 회전하는 시간 하루는 태양과 무관... 지구 먼저, 빛 먼저 창조돼



하루 - 한 달 - 일 년
하루의 기간은 다른 천체들과 상관이 없다

의 진화는 사실로 증명된 적이 없다. 숨겨진 가정을 집어넣어 설명된 가설들은 있지만 그 숨겨진 가정에 대해서는 쉬쉬하며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수백만 년의 진화론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고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백억 년의 빅뱅 이론에 영향을 받았거나 창조가 아주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을 생각해 보자. 하루 24시간이란 기간의 길이는 어디서 왔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믿기는 하지만 동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실제적으로는 천동설적으로 살고 있다. 하루 시간 가는 것을 해를 보고 알지 지구가 얼마나 돌았는지 보면서 시간을 인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 정신이 아닌

받아들이는 결과다. 그러나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수십억 년의 긴 기간이란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행간을 읽어도 찾지 못한다.

성경은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오로지 수천 년의 아주 짧은 기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창조 이론들을 만들어낸 유력한 이유는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난 결과다. 창세기 1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창조론들은 다 그런 것들이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칼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정말로 잘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서 던져주는 수백억 년의 (아마도 빅뱅) 영향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뒤엎고 있는 한 가지의 창조 설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태양은 4일째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 1-3일간의 하루는 현재의 하루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과학을 잘 모르셨을까?" "하나님이 무능을 감추려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하루 24시간이란 길이는 지구가 360도 회전하는 시간이다. 하루라는 기간이 태양과 연관되어 보이지 않더라도 하루라는 기간은 태양과 상관이 없다. 물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야 하는 1년은 태양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지만 하루는 태양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창조 제 1일부터 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00째 날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지구가 한 바퀴 돌아 하루가 되었을 것이라 설명에 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이 마치 태양처럼 지구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하루와 전혀 구별이 없었을 것이다.

또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신 논리적인 분이시다. 성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임을 천명하셨다. 그러므로 맨 처음 창조 된 유일한 지구는 창조되자마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회전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창조 3일째까지 지구가 아주 천천히 회전했거나 그 하루가 수백만 년이었다면 창조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논리도 역시 설명할 수 없다. 그럴 때에는 성경 그대로 24시간의 하루로 믿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다. 또 하나님은 너무 어려워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안 믿을 이유가 없다.

"창조의 하루는 얼마나 길었을까?" 아직도 이런 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교과서에서 그리고 세속 대중 매체에서 얻은 지식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거짓이 없으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수백만 년의 진화론이란 도구로 사탄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는 일반 크리스천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어서 모두 이 거짓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성품칼럼 (31)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외동아이를 위한 성품교육 (2)

4) 다양한 체험 학습을 계획해 보세요.
익숙한 가정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과 함께 다녀오게 해 보세요. 집과 다른 환경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난감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낮가림이 심하고 이기심이 많은 아이도 환경이 바뀌면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빌려 줄 정도로 친화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5) 선물은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함의하여 주세요.
사 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것을 피하세요.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있을 때 함의하여 선물을 사주는 방법으로 지도하세요. 외동이일수록 응석을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6) 훈육이 일관성 있고 균형 잡힐 수 있도록 양육하세요.
외동아이의 경우 부모가 너무 수용적일 수 있듯이. 이런 방법들은 아이를 혼잡스럽게 하고 사회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에게 해도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이 자녀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는 성품의 기초가 됩니다.

7) 외로울 것이라는 걱정을 버리고 당당하게 키우세요.
친형제자매가 없어도 이웃사촌 형제는 훌륭한 벗이 됩니다. 아이의 외로움을 덜어주려고 애써 친구 노릇까지 하는 부모의 눈물 어린 수고도 그만하고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넉넉하게 대하세요. 부모가 밝은 태도로 대하면 자녀도 밝은 아이가 됩니다. 근심으로 바라보시면 아이도 걱정이 늘게 마련이지요.

8) 혼자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부모가 함께 놀아준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혼자 놀면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외동아이는 무엇보다도 혼자서 계획해보고 실천해보고 완성해 보는 기쁨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 교육입니다.

9) 너무 많은 기대로 부담감을 주지 마세요.
하나뿐인 자녀에게 부모인생을 송두리째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대신해주는 부모, 그 대신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모들에게 외동아이는 지친답니다.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부모, 원조자로서의 부모역할을 감당하세요.

10) 실패를 경험시키세요.
무조건 이겨야 하고 다 성취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리가 외동아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감이 됩니다. 실패하는 경험, 좌절을 극복해보는 경험들이 중요한 교육이 됩니다.

11) 세상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우다 보면 아이는 경쟁과 타협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힘은 때로는 협상하고 타협도 하고 서로 윈윈하는 태도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주일학교: 9:00, 11:00	맨바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재근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멜빌교회 담임목사: 권용배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권명영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폴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종호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시애틀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알라바마 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앵커리지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업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앨파스얼린교회 담임목사: 박재수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윤권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워싱턴아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장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큰리교회 담임목사: 나병삼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재근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영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렘파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하트포트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만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아가페선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정현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곤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원우 주일: 9:00, 11:00 수일: 10:00, 11:00 목회: 10:00, 11:00 새벽기도: 7:00, 8:00

동부교계 게시판



“생명의 양식 나눔 운동”의 밤

“북년 고아들과 장애인을 위한 생명의 양식 나눔 운동”의 밤 행사가 6월 3일(주) 오후 5시30분 우리서로잡은손 국제해외선교회(I.M.O) 주최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아더 & 수 킨슬러 선교사부부의 북한선교보고도 함께 한다.
▲문의: (718) 353-3791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전도사 미동부 순회집회

‘다윗과 요나단’ 전태식 전도사의 미동부지역 순회집회가 다음과 같이 열린다. △5월 27일(주)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오전 11시, 주신장로교회(김용익 목사) 오후 2시 △30일(수) 베이사이드장로교회(이종식 목사) 오후 8시 △6월 3일(주) 뉴욕예일교회(김종훈 목사) 11시, 뉴욕복된교회(최예식 목사) 오후 2시 △6일(수) 뉴욕수정성결교회(황영송 목사) 오후 8시30분 △8일(금) 갯세마네교회(이지용 목사) 오후 8시 △10일(주) 리빙스톤교회(유상열 목사) 11시, 크렌쇼교회(이은수 목사) 1시.
▲문의: (718)690-6068(교회일보)

분노조절학교 및 부부행복학교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뉴욕사무실(45-69 Parsons Blvd, Flushing)에서 개최하는 분노조절학교가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열린다. 참가비는 120달러. 또한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8주간에 걸쳐 부부행복학교도 열린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장소는 뉴욕우리교회(53-71 72 Pl, off Grand Ave), Maspath. 참가비는 부부 320달러.
▲문의: (718)961-0151

뉴욕초대교회 스프링 스물 콘서트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가 6월 10일(주) ‘스프링 스물 콘서트’를 갖는다. 오후 12시 15분 아동부실에서 열리는 이 콘서트에는 동 교회 비전클럽이동이 출연한다.
▲문의: (718)639-3021

아이티 구호팀 모집

헬핑핸즈미션네트워크(Helping Hands Mission Network)에서 아이티 구호팀을 모집한다. 일정은 8월 13일(월) 출발 20일(월) 뉴욕에 도착한다. 사역내용은 아이티 고아원 쌀 공급, 고아들과 놀아주기, 주택 건설 돕기,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아이티인 집단거주지) 2곳 방문, 영화상영 등이 예정되어 있다. 비용은 항공료+500달러(현재 항공료는 약 650달러). 참가 자격은 10-12학년, 대학생으로 교사나 목사 추천서, 최근 성적증명서, 에세이(If I had a hundred dollars) 등이 필요하다. 서류제출 마감은 5월 30일(수).
▲이메일: choheny01@gmail.com

생명의 성령의 법 집중 세미나

제 10차 미주지역 목회자 및 사모 초청 생명의 성령의 법 집중 세미나가 6월 4일(월)-5일(화), 7일(목)-8일(금), 11일(월)-14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저지 주에수사랑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상환 목사(한국 사랑의빛교회 담임).
▲문의: (201)982-2520

T2C 여름비전캠프

T2C(TO THE CROSS)미니스트리(디렉터 전은일 목사)가 주최하는 제 4회 여름비전캠프가 “목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주제로 7월 11일(수)부터 14일(토)까지 뉴저지 양지교회수양관에서 열린다. 강사는 홍인석 목사(가나안장로교회), 전은일 목사(T2C 디렉터), 홍대원 전도사(그레이스교회), 이대욱 전도사(양지교회), 조희성 전도사(양의문 교회), 오창훈 박사(비블리컬신학교 교수) 등이다. 참가비는 150달러.
▲문의: (267)401-8656, (717)712-5508, euniljeon@gmail.com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 감당하라”

동부개혁장신 제 23 회 졸업식, 총 20명 졸업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영춘 박사) 제 23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21일 저녁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당에서 열려 캐나다분교와 합해 총 20명이 졸업했다.

훈시에 나선 장영춘 학장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강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배우게 하셨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일하라”고 강조하고 “그러기 위해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과 운운과 인내를 갖추고 믿음의 선한자음을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와 경건함으로 거짓교훈, 교만, 변론 언쟁 분쟁 행방 악한 말을 피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했다.

예배는 이사장 이용걸 박사의 사회로 기도 순환권 목사(동문회장), 성경봉독 장영일 목사(캐나다분교 학생처장), 찬양 글로리아선교중앙

단, 말씀선포 김남수 목사(부총회장), 화답송 성혜연(퀸즈장로교회), 학사보고 학감 문경환 박사, 학위수여 및 시상 장영춘 박사, 훈시 장영춘 박사, 졸업생을 위한 기도 박용희 박사(캐나다분교 교무처장), 격려사 전덕영 박사(이사), 축사 박규성 목사, 축가 이상훈(캐나다분교),



미주보수교회 연합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보수 정통신학과 신앙바탕 진리사수

미주보수교회연합회 창립총회 갖고 회칙 통과

8개월간 준비모임을 가졌던 미주보수교회연합회(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가 지난 21일 창립총회를 갖고 경과보고를 갖고 회칙을 통과시켰다.

임마누엘교회(담임 장시문 목사)에서 열린 총회 1부 예배는 김진화 목사(준비위 서기)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강성교회 담임), 성경봉독 이준성 목사(회계), 말씀 문석호 목사(효신장로교회 담임), 광고 김용익 목사(부위원장), 축도 황경일 목사(뉴욕목사회 중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문석호牧사는 “귀신들린 자의 모습은 이탄된 장소에 있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의미한다”며 “자기 중심 공동체는 퇴보될 수밖에 없다. 집단 이기심으로 합리화 하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목사는 “모든 조직, 활동, 방향, 취지가 변질돼가는 이 시대에 바른 소명을 가지고 모든 만물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시는 사명을 중심으로 진리를 사수하는 목회자, 미주보수교회연합회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부 창립총회는 박진하 목사(준비위 총무)의 사회로 인사 김명옥

목사, 경과보고 박진하 목사, 회칙 통과 김명옥 목사, 축사 장시문 목사 김이호 목사(삼일교회 원로), 창립 선언문 낭독 김명옥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김명옥 목사는 “8개월간 기도하면서 준비모임을 가졌다”며 “수많은 우려곡절이 있었으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성경의 계시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창립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단에 대해, WCC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또 오늘은 회칙만 통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총회를 열고 임원선출과 회계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회칙(초안)에서 낭독된 선언문(목적)은 “본회는 미주지역에 소재하며 신구약 성경을 정 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상위일체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믿는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하여 사비비 이단, 종교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WCC를 배격하고 보수 정통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예배, 선교, 교육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 이날 바이블선교재단(단장 Shinil Johann박사)이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2명의 목회자 자녀들에게 각각 1천달러씩 총 1만2천 달러를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사도행전은 세계를 품고 봉사하는 것”

뉴욕목사회, 김삼환 목사초청 목회세미나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김삼환 목사초청 목회세미나가 지난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김삼환 목사는 “칠년을 하루같이”(창29:18-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다음은 김 목사의 강의내용.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은 교회가 잘되는 일이며 거기에 생명을 바치고 있다. 교회만이 인류의 소망이다. 교회의 역할은 첫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며 둘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 천지창조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광야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목회는 영적으로 민감하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된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100% 하나님께 맡겨야 할 수 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인들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뉴욕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길은 광야목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구약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만 살았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야한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그 벽을 허무했다. 우리의 역할은 유대인과 전혀 다른 새 시대의 역할로 변해야 한다. 목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흐르심을 따라 가야 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권고하고(부르고) 계신다. 분열의 시대는 지나갔다. 세계를

답사 임장필 학생대표, 기념품 증정, 광고 김혜천 목사(총무처장), 축도 강기봉 목사(총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복음의 일꾼이 되자”(딤후4: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신중(근심)해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씀 신앙 믿음의 정절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전도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또한 고난의 길이므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 권영미 박기현 박창용 엄재하 이경민 이상훈 이희순 임창필 최현석 △선교학석사 장기욱 △여교역학 박명애 이미진 최완욱 △교회음악학사 김용구 김진섭 △신학사 방정훈 이순욱 제은숙 최용녀 황해욱.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소속으로 1987년 개교한 본교는 그동안 39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24시간 영양

뉴욕목회 스프링 캠프

New York Kom Tang

24시간 오픈

교포사회의 등대 주일은 쉽니다

전화: 32 W. 32nd St., New York, NY 10001 Tel. 212-947-8482
뉴저지: 329 Bergen Blvd Palisade Park, NJ 07650 Tel. 201-348-0201

AUTHORISED adidas DISTRIBUTION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Yoo Travel!

유 여행사

항공권 전문 도매 대리점

아시아나 · 대한항공
서울행 초 특가 요금 판매

Tel. 718. 463. 9500 / Fax. 718.463.7231
136-85 Roosevelt Ave., 2 Floor Flushing, NY 11354

NY Christian Guest House

뉴욕선교사의집

www.nycgh.org

5대양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sunnyusany@yahoo.com
35-74 162 St, Flushing NY 11358

347.732.9459



국제 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이사장 취임예배를 마치고 기념 촬영.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장석진 이사장 취임감사예배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지 회장 이병홍 목사) 장석진 이사장 취임감사예배가 지난 21일 아침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연규 목사의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손석완 장로, 특송 황진호 목사, 설교 김삼환 목사(총재), 축도 박희소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삼환 목사는 “선한 일을 열심히”(엢2:8-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방향전환인데 선한 일로의 전환”이라고 전제하고 “선한 일은 이웃돕기, 가장 큰 서비스는 예배드리는데 있다”며 “다음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시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에 세계를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주셨다”며 “복사로 모이면 부딪치는 일이 없다. 한민족은 갈등이 많은데 한국교회가 디아코니아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 장석진 목사는 “6개월전 이미 이사장을 맡았는데 총재가 오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돼 감사하다”며 “정성을 다해 세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후원 이사장으로서 지회 사업에 모든 재정을 전력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뉴욕성결교회 장로들이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의 후원 이사로 가입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필라기독교방송개국 16주년 기념대합창제

필라 기독교방송(사장 전영현 목사) 개국 16주년 기념대합창제가 지난 20일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합창제에 앞서 드린 예배는 강승호 목사 사회로, 기도 서장석 장로, 설교 최형관 목사, 헌기 백흥기 장로, 축도 조진모 목사, 인사 전영현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합창제는 필라여성합창단을 선두로 필라어린이합창단, 안디옥교회, 한인연합교회, 복스카운티장로교회, 영생장로교회 순으로 수준 높은 하모니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음악회는 할렐루야 연합찬양으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이 용필 목사의 폐회기도, 임직원소개, 신혜균 장로의 다과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전영현 사장은 “이렇게 대성황리에 마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여해주신 각 교회, 성회를 이뤄주시는 내민 여러분과 장소를 제공해주신 영생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필라기독교방송국)

SB48 악법임을 알리고 반대운동

GBC, PRE&Class Act 관련 목회자세미나 및 기도회

GBC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은 주민발의안 PRE와 Class Act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의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된 목회자 세미나 및 기도회를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미국교회 리더, 교육구 교육위원장, 크리스천 학교교장 등을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GBC에서 열린 PRE와 Class Act 관련 목회자 세미나 및 기도회에서 지나글리슨 갈보리채플 치노힐 Faith and Public Policy 디렉터가 동성애 미화교육이 실시중인 지역 학교에서 수업자료로 사용되는 교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나 글리슨 갈보리채플 치노힐 Faith and Public Policy 디렉터, 캐롤린 스킨켈 치노미들스쿨 크리스천 클럽 교사, 제임스 나 치노밸리 School District 보드 멤버, 브래드 다쿠스 Pacific Justice Institute 학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비정상적인 성교육을 받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나?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게 될 SB48자료, △공립학교에서 성경공부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교회에서 공립학교 성경공부

를 인도할 수 있는가? △치노밸리 School District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크리스천들의 Legal Rights △개인간증 등으로 세미나가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및 기도회를 가진 후 마쳤다.

이날 지나 글리슨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의 문화는 비기독교적인 문

화이고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



한기홍 목사가 강사 윤석전 목사를 소개 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설립 제30주년기념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교회설립 30주년을 맞아 윤석전 목사(서울연세중앙교회) 초청 부흥성회를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했다.

둘째 날인 지난 15일 집회는 한기홍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예배를 위해 1800여 명이 합심으로 통성기도를 마친 후 은혜한인교회 연합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연세중앙교회 성가단의 화상을 통한 찬양이 있었다. 이어 윤석전 목사가 요일 3장을 기초해 설교했다.

윤 목사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마귀의 술수 가운데 한 가지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 돈과 명예를 이용하

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에 있어서 시혜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치원생 등 어린자녀에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SB48의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한 긍정적 측면만을 가르친다는데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공평하며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은 가르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작년에 실시한 SB48법안 반대서명운동이 실패해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이 법안이 악법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현재 해야 할 것은 이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알려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정보는 initiativeclassact-www.classact2010.com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국제개혁신대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제 33회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이 5월 26일(토)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현성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BACS 14명, M.Div. 22명, MACS 2명 ECE 3명 등 총 41명이 졸업하게 된다.

▲문의: (213)381-0010

미주장신 제 32회 학위수여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목사) 제 32회 학위수여식이 6월 2일(토) 오전 10시에 홀리톤장로교회에서 거행된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Th.B.) 8명과 교역학석사과정(M.Div.) 31명이 학위를 받고 AST과정 2명도 졸업할 예정이다.

▲문의:(562)926-1023/4691

김승곤 목사 성경강좌

김승곤 목사가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성경강좌를 개최한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고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213)210-5638/453-4400

"사모 Blessing Night"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엄영민 목사)는 오는 31일(목) 오후 6시30분 하워드존슨 호텔에서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사모 블레싱 나잇(Blessing Night)'을 갖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갖게 되는 본 행사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날 순서는 예배와 만찬, 레크리에이션과 상품, 기념품 전달 등으로 진행되며 많은 사모들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문의: (714)323-9890/(714)417-8004

제 26회 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작품모집

미주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정지윤)에서는 2012년 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작품을 모집한다. 시, 수필, 소설, 동화, 동시, 동요, 생활수기 등 다양하게 모집하며 임상자는 본 협회 회원이 되고 문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응모마감은 9월15일까지. 작품은 2411 W. 8th St. LA, CA 90057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310)612-9580



UCLA에서 열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한국국가인권위, UCLA한국학연구소 공동주최

한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UCLA 한국학연구소(소장 존 던컨)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UCLA 캠퍼스 내 '찰스 영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에는 학계와 대학 지원단체 관계자 등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주민 인권침해 상황을 설명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라종일 전 주영대사의 '인성의 위기' 기조 발제로 시작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다룬 1부에서는 존 던컨 소장의 사회로 김성영 인권위원의 발제 후 데이빗 호크 위원(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산드라 파히 박사(USC박사후과정 연구원), 일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이기욱 고문, 탈북자 지원단체 LINK의 해나 송 대표가 토론자로 나와 △정지침 수용소 문제 △아동권리 침해 문제 △이산

가족 문제 △재중 탈북자 강제복송 문제 등을 논의하며 북한 인권 현주소를 진단했다.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탈북 후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탈북자 조진혜 씨와 다니엘리 씨가 직접 참석해 자신들이 살았던 북한의 처참한 삶의 모습과 직접 겪은 탈북자들이 복송 후 겪는 고통들을 밝혔다.

다니엘리 씨는 "김일성이 통치하던 때에는 무료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지만 김정일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모든 학생에게 강제노역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생활이 낯설지만 인권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다. 북한은 소망을 버리고 사는 곳이지만 미국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이다.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바란다. 북한에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관심을 가져 달라. 북한의 인권에 관심 가져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쉐마 목회자클리닉 개최 6월11-15일

현용수 목사 신간 "성경이 말하는..." 출간

쉐마 목회자클리닉이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로렐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쉐마교육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쉐마교육연구원 원장 현용수 박사가 강사로 서는 본 클리닉에는 목회자, 교수, 선교사, 신학생 교육 담당 리더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조기등록자(5월25일 한)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본 세미나 3차 학기는 미국 유대인촌 견학 후 졸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쉐마

기도 한다. 주님과 의 약속이나 주의 종들과의 약속 모두 다 돈이나 명예보다 우선해 잘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는 오직 기도다. 그리고 성도는 넓고 크고 환한 길보다는 고난의 역사를 각오하더라도 좁은 길 험한 길을 택해 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 해주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목사는 "나는 유년기 때부터 탈선이라는 것을 모르고 성장했는데 그 원인은 어머니께서 항상 기도로 품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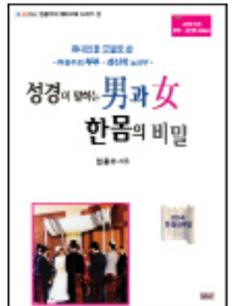
(박준호 기자)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미니스커트나 민소매 옷을 입지 않는지, 화장에서는 왜 남녀가 따로 앉는지, 가정에서 어머니는 왜 머리에 가발이나 두건을 항상 쓰는지, 남자 점원은 왜 여자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줄 때 따로 점시에 담아주는지, 유대인 전통학교에는 왜 남녀공학이 없는지, 유대인 부부는 왜 공중 앞에서는 손을 잡지 않는지 등 유대인들만의 특이한 성문화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

쉐마 목회자 클리닉과 새로운 저서에 대한 문의는 (773)600-1860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현용수 목사가 발간한 신간 서적 '성경이 말하는 남과女的 한몸의 비밀'

제 26회 1983, KACLA, Korean-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Association

2012년 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작품모집

미주지역 한인 사회의 문화 활성화와 보다 넓은 문학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각자의 정서의 함양을 위하여 제정한 크리스찬 신인 작품상의 응모작품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모집작품 시 : 3편 이상
 수필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이상
 소설 : 단편소설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 장편소설 - 1편
 동화 : 1편 이상 200자 원고지 30매
 동시 : 5편 이상
 동요 : 5편 이상
 생활수기 : 1편 200자 원고지 50매

작품소재 작품 소재는 자유이며 반드시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무방함.

응모마감 2012년 5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작품제출처 2411 W. 8th St. Suite 101 Los Angeles, CA 90057 Tel:2131249-0771

심사위원 문단의 중진들에게 위촉하고 당선자와 함께 발표함.

발표 2012년 10월 3일, 미주판 신문에 공고하고 입상자에게는 시상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함.

특전 입상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에서는 입상자들이 문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기타 작품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며,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되 응모권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주최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2411 W. 8th St. Suite 101 Los Angeles, CA 90057
 Tel. (310)612-8580, Fax (213)380-7079
 skykoh60@hanmail.net

2012년 임원명단 **회 장** : 정지윤
부 회 장 : 김상분
사무국장 : 고팡이

정지윤 회장

김승곤 목사 성경강좌

일 시 2012년 6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30분

장 소 한미장로교회당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참가자 초교회, 초교파, 아직 교회에 나가지 못한 분이라도 진리를 알고자 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연락처 213-201-5638, 213-453-4400
 해·륙·선교회(Sea and Land Mission)

한미장로교회
 W Olympic Blvd

“성령운동 확산 재부흥 견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제61차 정기총회

[미션라이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총회장 이영훈 목사)이 21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6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성령운동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전체 총대 1097명중 8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총회에서 교단은 3년 전부터 추진해온 기하성(총회장 박성배 목사)과의 통합이 여전히 유효하며 부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완전 통합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단은 “지난해 60차 총회에서 부

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하성과의 통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올해도 기하성측의 부채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통합결의를 유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분열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기 위해선 기하성이 먼저 하나 되어 한다”면서 “교단 통합의 원칙을 지키며 희생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 연합과 일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오순절 성령운동”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총대들에

게 말씀·기도·선교·연합 중심의 성령운동을 전개하는데 힘쓰자고 독려했다. 이 총회장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 20억 명의 크리스천 중 6억 3000만 명이 오순절 교인이라고 한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한국과 세계교회가 오순절 교단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기 기하성 총재도 영상축사에서 “오순절 교단이 펼쳐온 뜨거운 성령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 거대한 성령운동의 물결을 일으켜 새로운 교회사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교단은 전국에 2613개 교회에 4505명의 교역자와 126만3459

명의 교인이 소속돼 있다고 밝혔다. 교인수로 봤을 때 예장 합동(295만 명)과 통합(285만 명), 기감(158만 명)에 이어 네 번째 교세다. 현재 3개 교단으로 나뉜 기하성의 전체성도 수는 180만 명으로 추산되며, 과거 장로교-감리교-성결교를 지칭하던 ‘장감성’의 구도가 ‘장순감’으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회수로는 예장 합동(1만1456개)과 통합(8162개), 기감(6136개), 기침(2855개), 기성(2635개)의 뒤를 이었다. 선교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단독으로 62개국에 71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총회에선 45개국에 18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헌장개정안 처리·임원 선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91회 총회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21일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91회 총회를 개최하고 목사부총회장에게 나세웅 목사(서울 신림동중앙교회), 총무에 조일구 목사(광주 한사량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 총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헌장(헌법)개정안과 목사부총회장·총무 선거였다. 헌장개정안에는 제비뽑기 선거제도, 임원자격 강화, 실행위원회 임무, 원로대의원 파송, 추천대의원 신설, 총무 단임제, 신실교회성 요건 강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총회 전부터 관심이 높았다. 628명의 총대는 헌장개정전권위원회가 제출한 헌장개정안에 대해 “일괄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주요 변경안만 다루고 나머지는 차기 총회에서 다루자” “1년간 더 연구한 뒤 차기총회에서 처리하자”는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결국 다수결에 들어가 헌장을 1년간 연구한 뒤 차기 총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원로대의원 파송, 제비뽑기 선거제도와 같은 파격적 정책이 다수 포합돼 단순 표결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총대들의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

임원선거는 관례에 따라 목사부총회장을 맡았던 김두성(안양중앙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자동 선출됐다.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예성 은급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세웅 목사는 1차 투표에서 358표를 얻어 248표를 얻은 이종복(서울 창신교회) 목사를 크게 앞섰지만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했다. 나 목사는 2차 투표에 들어가자 직전 이 목사가 사퇴함으로 목사부총회장에 선출됐다. 4년간 총회 안살림을 책임질 총무도 부총회장 선거 못지않게 관심을 끌었다. 조일구 목사는 305표를 얻어 296표를 얻은 최귀수 현 총무를 9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조 목사는 현재 광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회장과 성결교신학대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기는 이동석(서울 능력교회) 목사, 부서기는 유우열(인천 북원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회계는 남상용(성지교회) 장로, 부회계는 김종상(신수동교회) 장로가 각각 단독표로 당선됐다. 장로부총회장 신치순(서안양교회) 장로와 회의록서기 공재영(수원중앙교회) 목사는 단독입후보 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하성(통합) 제61차 정총, 1천5백여 총회원 ‘한마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제61차 정기총회가 지난 14일과 15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라는 주제로 은혜와진리수양관에서 열려 △총회장 김인찬 목사 △부총회장 최철권 목사 △총무 김홍성 목사 △서기 양요한 목사 △재무 정부용 목사 △회계 김양인 목사가 압도적인 지지로 선임돼 새로운 한 회기를 이끌어 가게 됐다.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1부 예배, 2부 축사 및 특강 순으로 이어졌으며 교단 총무 김홍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교단 총회장 임종달 목사의 인사말씀, 부총회장 김인

찬 목사의 기도, 전라지방회장 김갑신 목사의 성경봉독, 은혜와진리교회 GNTC합창단의 찬양, 랜디 브룩스 찬양사역자(뮤지컬 ‘His Life’에서 예수님 역할)의 특송, 세계 및 미국 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조지 오우드 목사의 설교(“추수의 법칙들”, 갈 6:7-9)로 이어졌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경제회복을 위해’, ‘교단발전과 교회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최철권 목사(교단 교회성장국장), 류기서 목사(교단 고시위원장), 김석송 목사(교단 평신도국장)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



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총회장 임종달 목사는 지난 한 회기동안 교단발전 전을 위해 헌신해준 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회장 임종달 목사는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둘째 날에는 오전 8시부터 축사 및 특강 후 이어 사부총회가 열려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 합격자 인준에 이어 각 국, 각 위원회별 각종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

이 상정됐다. 또 총회 60차 감사결과 및 결산보고, 61차 총회 임원선거, 61차 총회 예산안 심의 및 결의, 각 지방회장 실행위원 자격인준 및 교단발전에 관한 건이 결의됐다. 본 교단 총회는 2008년 교단통합 이후 행정구역별 지방회 통합을 추진, 효율적인 지방회 운영을 하고 있다. (기사제공: 기하성(통합))

목사·장로 6500여명 “예수생명 회복·확산” 예장합동 부산 수영로교회 전국목사장로대회

“이 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14-15일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된 예장 합동 ‘전국목사장로대회’는 젊음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대학생 여름수련회를 방불케 했다. 전국에서 모인 6500여명의 목사·장로는 교단의 100년 역사를 자축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대했다. 사실 이번 대회는 총회설립100주년 행사의 최고 정점에 있다. 참석자 규모

만 봐도 기록적이다. 교단에 소속된 목사 1만9000명과 장로 2만명 중 6분의1이 한 자리에 모였다. 총회설립100주년을 맞아 열린 교단 최대의 ‘잔치’는 오페라 공연과 22개의 트랙강의, 이렇듯 이화여대 석좌교수, 브라이언 채플(미국 카버넌트신대) 피터 릴백(미국 웨스트민스터신대) 총장 특강 등으로 품격을 더했다. 특히 교단 내 대표적 학자로 손꼽히는 박용규(총신대) 교수와 권성수(대구 동신교회) 목사

가 각각 14,15일 저녁집회 주강사로 나서 100년 역사를 평가하고 “교단이 새로운 100년을 맞아 예수생명의 회복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개혁주의 신학전통을 고수하는 채플 총장과 릴백 총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 세속화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권위만큼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면서 “서구교회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고 미국교회를 넘어서 세계선교의 위업을 한국교회가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의 포인트는 기도함주회와 오페라 ‘손양원’, 이어령 교수의 강의였다. 참석자들은 14,15일

밤 오정현(서울 사랑의교회) 박성규(부산 부전교회) 목사의 인도 아래 각각 기도함주회를 갖고 심자가의 감격과 강단 회복, 개혁주의 신앙 정체성 유지를 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다. 49번째 이어지는 역사적 기도회에서 오페라 공연을 올린 것은 보수신앙을 고집하는 예장 합동이 문화라는 시대분위기에 발맞춰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100명이 출연한 오페라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의 송고한 순교적 삶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이번 대회는 CTS에플리케이션으로도 생중계됐다.

서울시설관리공단 게시물에 ‘동성애 광고 금지’ 알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동성애자인 이모(26)씨가 S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쇼핑센터 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물 게시 거부 진정의 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를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S광고대행사는 향후 성적 지향 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광고수수 또는 광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계약조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등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S광고대행사가 이날 이 같은 합의문을 받아들여 앞으로 서울 인근 지하철 역사에 ‘성적 지향 등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 결정은 최근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동성애 광고 철거 안내와 버스 광고 등으로 교계의 반발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날 ‘동성애 옹호 광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관계 기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시내버스와 구내 공용 게시판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만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곳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모든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동성애 광고 허용 즉각 중단하라” 교계 시민단체 성명 봇물

[미션라이프]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동성애자(성소수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동성애 차별 금지 현수막과 버스광고까지 상세히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철회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겸 실행위원장 김원평 교수)은 15일 ‘서울시는 동성애 광고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이름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연합은 결의문에서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이뤄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이 왜곡된 성개념을 가진 일부 소수의 견해를 받아들여 밝은 사회를 지향하는 많은 시민과 아이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부흥 밑거름 되자” 다짐 군선교연합회 40주년, 9천명에 진중세례

[CBS] 60만 국군장병의 복음화를 외치며, 육해공군 부대를 누빈 군선교연합회 40주년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7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40주년 감사예배

에서는 교회와 지역, 교단을 뛰어넘어 군 복음화 사명을 다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군복음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과선회

이사는 기념사에서 “군선교연합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력해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복음을 심는 바울처럼 죽을 각오로 군 선교에 힘쓰자”고 격려했다. 군 선교를 통해 기독교 부흥의 밑거름이 되자는 다짐도 이어졌다. 한편 19일에는 9천여 명의 장병들에게 진중세례를 실시했다. 15년 만에 야외 대면방사에서 실시된 진

중세례식은 군복파송 11개 교단 목회자 150여 명이 집례에 참여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합동 진중세례식은 1971년 육군 21사단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이후 군선교연합회가 설립돼 군중목사 파송 11개 교단을 중심으로 지난 20년 동안 350만 명의 장병들에게 세례를 집례 한 바 있다.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새끼 새끼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 신학교육과
기독교교육학과 /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학과
종교문화학과 / 문화철학과

Toll Free 1-800-281-2123
E-mail: reformeduniv@reformeduniv.org
TEL: (714) 796-1660 FAX: (714) 796-6624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저가여 영을 드립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례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전미주와 해외 44개국 복음을 심어 나뉩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를 수북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5-17 Franklin Ave. #206
Rushing, NY 11355
Tel:(718)686-4400 Fax:(718)6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66
E mail: LA@chpress.net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_____ 영문: _____
② 교회(기관) 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_____ 영문: _____
⑤ 사목주소	_____
⑥ 사목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 _____
⑧ Web Add.	http:// _____
⑨ 소속교단(종파)이름	_____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세요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8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자동형 복사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정도송-볼비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및 학생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8
TEL: 813.282.4884 Fax: 813.282.4584 Email: wordoflifebooks@aol.com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를 넘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하기

기독교보와 문예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인터뷰 조철민 전도사(조에 워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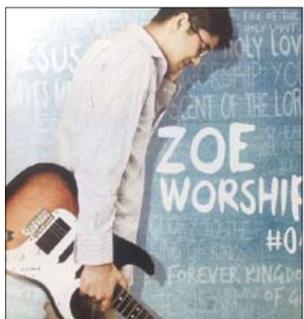


“한국교회 예배음악에 적합한 음반을 만들어 외국 곡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예배음악을 보급하고 싶습니다.”

조에워십(Zoe Worship)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음반을 제작 발표한 조철민 전도사(아이엠쳐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들이 예배찬양과는 거리가 있는 곡을 부르기도 하고, 예배 찬양곡을 부르라고 하더라도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곡을 선정하기가 매우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전세대가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날 교회에서 찬송가의 사용빈도가 매우 적습니다. 흔히 전통예배라고 불리는 예배 외에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를 대신하는 소위 말하는 CCM을 보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곡은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부르더라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단지 선율이 아름답다는 이유로, 리듬이 흥겹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불러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또한 예배 찬양곡에 있어서 한국인 정서에 맞는 곡이 많지 않으며 예배 찬양곡 중에서도 음이 너무 높거나 엇박자 리듬 등 젊은 세대 위주로 편곡이 돼 40



리,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기를 구하는 ‘주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린 ‘주님의 향기’, 주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한 축복송 ‘당신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공격 ‘예수의 군대’를 보너스 곡으로 앨범은 끝을 맺는다.

조 전도사는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흔히 찬양음반 등을 듣게 되면 세상음악에 비해 곡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조에워십은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치밀하게 제작했다고 밝혔다. 앨범에 참여한 뮤지션들을 보더라도 드럼을 맡은 Steave Distanisiao는 핑크 플로이드의 기타리스트인 David Gilmour밴드

한국교회 정서에 맞는 예배찬양 보급 프로젝트 앨범

대 후반이후의 어른세대들이 따라 부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가 시도한 것은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창작 찬양곡을 만드는 것이며 그 곡은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저는 현란한 사운드와 창법으로 단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조에워십 앨범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셋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더군다나 예배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앨범에 실린 곡들은 첫 번째 곡부터 마지막 보너스 트랙까지 한국 한국이 예배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때로는 힘차고, 때로는 차분하다. 또 다양하지만 그 안에 일관된 예배가 있다.

앨범에 실린 곡들은 기쁨의 예배로 초대하는 흥겨운 곡 ‘주 호흡있는 자’를 시작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는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나 오직 주님을’, 예배를 향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나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그린 ‘왕의 왕께 영광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을 고백하는 ‘나 그길 따라 가

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세션이며, 베이스의 David Hughes는 찰리브라운으로 유명한 데이빗 베노이트 밴드의 일원으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

무엇보다 이 앨범 연주에 백미는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제2 색서폰 거장인 루스노 알마리오와 라틴퍼커션의 대가 로이스 콘테가 참여했다. 이들이 연주한 음원을 가지고 뉴욕에서 세계적인 뮤지션들인 Yo-Yo Ma, Pat Metheny, Ryuichi Sakamoto 등의 녹음을 맡았던 강효민 음악감독이 믹싱에 한국인 최초로 음향부본에서 그래픽상을 두 번 수상한 황병준 음악감독이 마스터링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였다.

조철민 전도사는 조에워십 앨범의 모든 곡들이 예배음악에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모든 곡들이 예배음악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대중음악을 하며 기타로 세션에 참여하고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조철민 전도사, 그는 앞으로 수준높은 예배찬양곡 제작을 위해 그리고 세상음악 이상의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뮤지션들을 발굴하여 조에워십 앨범을 한국의 프로젝트 그룹인 토이처럼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에워십 음반 구입에 대한 문의는 203-703-4022로 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선교지 편

온두라스

내가 가서 보고 느낀 사역지 la mosquitia를 알고 있나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온두라스의 la mosquitia(원명 Gracia A Dios)는 북쪽 카리브 해에 인접한 곳이다. 이곳은 아열대 지역으로 평균 32-34도, 육지에 붙어 있지만 육론드 산이 막고 교통이 없어 경비행기나 배로 갈수 있는 천혜의 고도 아프리카나 다름없는 곳이다.

이곳은 miskito(일명 모기)란 인디오가 8만이나 혼혈되지 않은 채 각 지역에 흩어져 니카라과와 경계를 이룬 세고비아 강을 끼고 400년간을 문명을 뒤로 하고 살아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디오들은 자기 나름대로 miskito란 언어와 문자를 갖고 살아가면서도 Copan유적(마야문명)같은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인디오들은 어디서든지 카누와 야자수로 지붕을 덮은 수상 가족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무서운 독충과 말라리아, 파라스ито(회충) 풍토병, 에이즈 환자가 극성을 띤다. 해마다 마약과 술, 총기류, 불법 사용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인디오들이 많다.

이곳은 피할 수 없는 문명사회를 통해 수십년간 유럽의 모라바(경건주의자)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기독교가 도입되어 모라바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졌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떠나가고 그저 그들의 실상을 교묘히 위장하여 은폐장소(교회)를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거기다가 가톨릭은 오랫동안 힘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그 결과 원주민 인디오들을 장악하였다.

그런 역사로 점철된 la mosquitia에 내가 Norma(온두라스인 미국인) 선교사의 초청을 받고 외국인 선교사로는 Moceror의 첫 번째 선교사로 1)교육 2)의료 3)복음을 들고 행정수도인 Puerto Lempira에서 82km 떨어진 moceror이란 산간 마을로 갔을 때 인디오들은 나를 환영했다.

우선 피부 색깔이 비슷하고

동양인데다가 몽고반점을 갖고 있는 그들은 당신은 있고 백인은 가라고(green go) 말하였다. 결국 백인들의 점령은 정당화하기 위한, 즉 교회를 세웠지만 인디오들에게 헌신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인디오를 정복할 수 없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본다.

인디오 문화가 꽃피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인디오 심층에서 볼 때 la mosquitia에 인디오의 문화가 꽃피지 못한 것은 스페인에게 정복당하지 아니한데 있다고 본다. 당시 콜럼버스가 이곳 Caratasca 해안을 따라 들어 왔음에도 심한 해일과 짙은 안개로 앞을 분간 못하고 겨우 출구를 찾아 다시 돌아간 것이다. 그 때에 남긴 말인 ‘출구를 다시 찾게 해주어 감사하다’는



정권수 선교사는 온두라스 라 모스키타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며 선교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주재국 각 나라 대사, 내외귀빈 2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 초청받은 정 선교사가 Porfirio Lobo Sosa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맨 위). 대통령은 태권도를 통해 정 선교사와 친분을 갖고 있다. 맨 아래 사진은 온두라스 대통령과 축배하는 원종은 한국대사.

말이 Garacias A Dios란 이름으로 주 명이 되었다.

이곳은 공동사회의 가치관이나 자연 사랑, 노동 상호간의 이익 등이 별개의 것으로 치부되어오고 있다. 그러다보니 스페인 정복자와 싸운 Lempira 같은 뛰어난 인디오 영웅도 없다(렘피라는 현재 온두라스의 화폐단위 명칭 이름으로 사용됨).

이곳 인디오들은 정복자들

로부터 토지와 노동력을 빼앗긴 적은 없는데,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교육 부재 2)혼전 임신과 사생아 3)심한 질병이다. 이상하게도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나 곡식이나 채소 과일이 생산되지 않는다. 비타민C가 부족하여 이가 다 빠져있다. 인디오들은 아프리카나 다름없는 독자적인 주거환경과 촌락을 형성하여 산이나 강에서 사냥을 하고 수렵을 즐기며 원시적인 농경생활(화전)을 하며 살아간다.

유럽인과 아랍의 피가 섞인 온두라스

온두라스 18개 주(행정단위)에 7개 인종이 살아간다. 1) Miskito 2)Pech 3)Garifuno 4) Tawahka 5)Lenca 6)Chortis 7)Tolepanes이다. 그들은 아랍의 피가 섞인 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단 Mikito 인디오들만 말과 문자가 있다. 또 실제적인 종교적 통일이 가톨릭으로 하여금 이상과 결합하게 되면서 스페인은 동시에



정권수 선교사는 온두라스 라 모스키타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며 선교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주재국 각 나라 대사, 내외귀빈 2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 초청받은 정 선교사가 Porfirio Lobo Sosa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맨 위). 대통령은 태권도를 통해 정 선교사와 친분을 갖고 있다. 맨 아래 사진은 온두라스 대통령과 축배하는 원종은 한국대사.

통일된 언어(스페인어)를 가지고 한군데 묶어 버렸다. 거기다가 아프리카 흑인 350만 명을 대서양에서 노예로 실어와 카리브 지역에 풀었다.

특히 Roatan 섬이나 Tela 항구 도시에는 아프리카의 세네갈이나 앙골라에서 온 흑인 후손들이 Gurifuno 인디오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집약적이고 대규모인 열대작물의 경작에 예측되었던 것이다.

유네스코(unesco)에 등록된 la mosquitia

현재 이곳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보고)로 보호받고 있다. Las Marias의 Platano강가의 물에 새겨진 사람의 얼굴과 동식물의 그림(art of stone)을 통해 Miskito의 목소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문화공동체는 하나도 없던 것을 알았다.

나는 스페인에서 수년간 살았고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 인디오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다. 점차 그들은 유럽이나 아메리카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 혼합문화의 일원이 되고 차츰 혼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가 알기로는 100년이 가도 이곳 인디오들은 깨어나거나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술한 교회가 있어도 그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la mosquitia에 눈을 돌려라

이곳 행정 수도인 Puerto Lempira에는 유리바다(sea of glass)란 이름을 가진 선교관이 바다를 앞에 두고 세워져 있다. 209.1.3-21 사이에, 미국인 선교사 Roger & Katrina 부부선교사가 준 땅위에 단층 목조 건물로 내부시설은 수세식 화장실(남녀), 욕실(남녀), 부엌, 침대, 빨래터 등을 갖추었다. 거기에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 마이크로오븐을 갖추고 누구든지 와서 사역을 하며 머물다 갈수 있는 곳이다.

해마다 가끔 들리는 선교팀은 이곳에 머물면서 감탄을 한다. 이런 곳에도 어떻게 이런 집을 지었느냐고? 평생을 이곳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엄을 배울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 같은 멍청한 바보가 있기에 이렇게 살수 있다고 말이다. 여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학을 꽃 피우며 나의 삶을 마치고 싶은 것이다. 주여 도우소서!

정권수 선교사 이메일: ksjung818@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토폴은 요구하지 않으나 ESL과정을 병행함)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능
3.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4.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Midwest 특징

-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동반 자녀는 공립학교 무료교육)
3. 수시 입학이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r Tnpk # 400, Annandale, VA 22003 Tel: (703)626-8712, (571)730-4750 wdc@midwest.edu

나의 희망, 기쁨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해피 라이프 (3)

석은옥

(고 강영우 박사 부인)



백문이 불여일견

아이들에게 삶의 중심이 되는 사고와 가치관이 자리 잡는 시기는 11-15세 무렵이다. 이때 무엇보다 많은 독서를 통해 신앙의 선조나 역사적 인물들을 만나게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념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보게 하거나 그 영향을 받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의 사상과 신념, 신앙을 배우게 해줘야 한다.

'이 시기를 나는 우리 두 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가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현장을 찾아가 보거나, 훌륭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쳤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면 그 꿈을 꿀 수 있는 현장을 눈과 마음 안에 담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기차나 버스로 미국 동부의 역사적 도시들을 방문했다.

맨 처음으로 메인 주에 도착한 우리는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미대륙에 처음 도착했을 때 타고 왔던 배인 '메이플라워호'가 있는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국 역사의 출발과 발전과정을 배운 다음 보스턴에 들러 하버드 대학의 캠퍼스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네 꿈을 키울 수 있어."

나는 두 아들에게 하버드 대학 설립자의 동상이 세워진 곳에서 사진을 찍게 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주었다. 우리는 이어 버스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가 그곳의 여러 고적지를 둘러본 다음, 수도인 워싱턴도 견학했다.

그러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해야 할 것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당시 한국에서는 88올림픽이 열렸다. 나는 두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싶었고, '너희는 한국인 2세'라는 정체성도 심어주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고향을 보여주려고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마을과 서종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교실에 들어가니 옛날에 쓰던 나무 책상이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곳은 아빠가 시력을 잃기 전에 뛰어놀던 곳이다.' 그곳 이외에도 경주, 제주도를 거쳐 강서

의 본관인 진주에 들러 시조인 강이식 장군과 강씨 가문의 역사를 들려주며 아이들에게 더없는 긍지를 심어주었다. 그런 후 나는 성경말씀 두 구절을 읽어주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 늘려야 하는 지혜와 훈계를 떨치시라"(잠1: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잠3:5-7).

꿈을 위한 바탕을 준비하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보통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받는 형식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보다 비형식적인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 행복하고 건전한 자녀는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Heart, 즉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따뜻한 가슴으로 온 가족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용서해야 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남성인 아버지보다 이런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러한 역할을 더 잘해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머니가 심장이라면 아버지는 Head, 즉 '머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가정의 지침이 되는 가훈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 계획을 잘 세워주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아이'는 그 가정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아이들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생활 그 자체를 그대로 본받아 흉내 내고 따라 한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모다. 근면하고 정직하며 법을 잘 지키는 부모, 이웃에 친절하고 서로 돕고 존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부부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툰 때도 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이럴 경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본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연구 결과로도 나온 바 있다.

(다음호에 계속)



케냐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62:6하-7).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케냐 마싱가에서 문안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건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비가 4월 2일에 왔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많은 비를 주셨습니. 계속된 강우와 갑자기 퍼붓는 폭우로 50여명이 숨지고 60,000여명의 이재민이 속출하였고, 칼리피 카운티에서는 인근 강둑이 무너져 700여 가구가 집을 잃는 등 전국 각지에서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케냐정세

케냐는 아직도 소말리아의 공격 테러 단체인 알 샤바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BBC방송에서 케냐의 테러 발생을 4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대사관의 주의를 인용하면서 나이로비의 호텔, 중요 정부 건물 등에 대해 테러 발생이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1998년에 발생한 미국대사관 폭파사건을 언급한 것을 보면 단순한 슈루탄 테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4월 29일 나이로비 응가라 지역의 한 교회에서 슈루탄 투척 테러가 또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테러는 지난 23일 케냐 주재 미대사관이 테러가 임박했다는 경고 메시지를 케냐 거주 미국인들에게 전달한 지 6일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라일라 오딩가 총리는 최근 출신 종교계 기반을 둔 정치그룹이 형성되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총선거 대신 이후 종족분쟁에 따른 유혈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케냐는 지난 2007년 말 대선 이후 개표 부정 의혹을 겪으면서 종족분쟁 양상을 띤 유혈사태가 발생, 1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여만 명의 내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케냐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싱가 신학교

신학교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계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월 17일에 제 20회 졸업식을 하여 일반과정 10명, 특별과정 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4월에 있었던 특별과정 수업은 건축과 여러가지 일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공부하였습니다. 일반과정은 5월 7일 개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1학년의 기독교인의 삶과 3학년의 바울의 선교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들은 특별과정 학생3명과 일반 과정 학생 4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편 케냐의 물가가 너무 올라 학교운영이 어려워 5월 학기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석가래를 만드는 일이 쉽지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석가래를 만들었습니다. 주문하면 목바사 공장에서 2주면 온다고 하던 함석기 봉을 한 달 만에 받아 지붕을 올렸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이루어 나가기 힘이 들며,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한 일은 저희와 함께 일하는 현지인AIC당도 마싱가 노회의 70여 교회들이 힘을 모아 우리 창틀과 철문을 해주어서 달았습니다. 이제는 벽면과 바닥을 하면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같이 기도해주며 협력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곳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같이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유치원 교사 훈련대학

3월에 전부 24과목을 마치게 되었고, 5월부터 3개월간 인턴십을 하게 되면 모두 마치어 알리스, 애

나, 로즈 3명이 졸업하게 됩니다. 알리스는 이곳 신학교를 졸업했고, 교회에서 일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애나는 신학교 사무실에서 일하며, 공부하면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생겨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즈는 특별과정에서 졸업한 목사 사모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일을 위해 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그동안 아이들의 대학문제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곳으로 결정하여 저희는 이태카 대학에서, 미해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욕 주 북부 온타리오 호수가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와 이곳에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태카 대학이 겨울이 춥고 길어서 조금 어려가 되지만 열심히 공부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이곳 케냐에서 1년여간 지내던 큰딸 인혜는 7월 중순 지혜와 미해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 학업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2008년 이곳 케냐에 들어와 사역하던 저희들이 사역한지도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4년마다 안식년을 가지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고 약해져 있어 금년 7월 중순부터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기간에는 후원해주시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선교보고 하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가진 후 선교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관심과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애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샤아, 이에경 선교사 드림

이메일: isaiah.lee@aimint.net, isaiah081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3-7797, Fax. (02)323-422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20-27</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계정</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794-95 군포시 남동로 370-10호</p>	<p>금관교회</p> <p>담임목사: 김정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40-1(352-212)</p>	<p>김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동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김포시 서북로 201번지</p>	<p>광주신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300-170 영고로(신일) 부곡동 520-1번지</p>	<p>동경중앙교회</p> <p>담임목사: 이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2-10-9 Gange Station,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영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9:00 교우모임: 오후 9: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9)400-631 영고로(신일) 부곡동 520-1번지</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영우</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매월)</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VIA DEI QUERINI 32-33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p>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삼보교회</p> <p>담임목사: 박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새연교회</p> <p>담임목사: 소경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매월)</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영고로(신일) 부곡동 520-1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명복</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김경곤</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 지역예배: 오후 8:30 지역예배: 오후 9: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수영로교회</p> <p>담임목사: 이규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승문교회</p> <p>담임목사: 박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시온소교회</p> <p>담임목사: 김경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매월)</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영고로(신일) 부곡동 520-1번지</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선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이경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안암제일교회</p> <p>담임목사: 조윤</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 지역예배: 오후 8: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저용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매월)</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841-370) 영고로(신일) 부곡동 520-1번지</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자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기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나권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장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정주주의교회</p> <p>담임목사: 주서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지역예배: 오후 8:00 지역예배: 오후 8:3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준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지역예배: 오후 8:00</p> <p>Tel. (02)323-8200-8201, Fax. (02)323-8202 서울시 양천구 목동 300-1(154-557)</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10)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2. 성격-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

(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

우리 한인 교회의 기독교 교육이 지난 두 번째 성격인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Bi-cultural/Bi-lingual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사역의 지향할 바라는 것을 말씀드렸으며, 그 첫 번째 가치는 그것이 우리 한인들 특히 우리 한인 자녀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갈등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치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가치는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이 향후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그들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교회와 사회를 위해 크게 일하도록 그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통해 그 어려움과 혼란을 경감시키고 그들의 이중문화적 이중언어적 능력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일깨우고 응원하여 그러한 능력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개한 그들의 능력은 한국과 미국의 교회간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사회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이해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서 기독교적인 리더들로 성장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 가치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이중문화적이고 이중언어적인 능력을 갖춘 그리고 단단한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들은 미국과 세계를 향해 한국 교회와 한인 교회의 신앙적 전통들과 가치들, 그리고 강점들을 알릴 수도

이중문화/이중언어의 혼돈 이겨내면 능력 얻고 그 능력 발휘 가교적 상호교통의 가치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근간 마련

다시 한 번 복기를 해보자면 이중문화적인 교육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있는 많은 다른 문화들이 모두 각각 그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그 기본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문화적인 교육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의 양 문화에 모두 익숙해지고, 양자를 모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게다가 이중 언어적 교육은 1.5세 자녀들뿐 아니라 2세 자녀들도 한국말과 영어를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이중 문화적/이중 언어적 교육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이중문화적/이중 언어적 능력-양쪽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양쪽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지지 받게 될 때, 이미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 교통의 가치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이중 문화적/이중언어적 능력을 갖춘 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크게 일하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이 갖는 두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물론 그들의 인생에 밀려온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의 파도와 풍랑 가운데 표류하는 듯 때론 방황하고 때론 혼돈스럽습니다. 따라서 그 파도를, 그 풍랑을 이겨내면 능력을 얻고 그 능력을 발휘 할 물이 드러난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회의 교육을

있으며, 미국 기독교 및 사회로부터의 배울 점들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소통시키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여러 나라와 문화들에서 배울 가치가 있는 좋은 범례들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혹은 그 어디에서 공간적인 거점을 두고 활동을 하든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은 우리 한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모습들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더욱 더 확고 해집니다. 이에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교회의 이중문화적/이중언어적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위해 일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글로벌한 인재들로 성장해 가는데 그 근간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를 보다 크게 보고,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한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고 양육한다는 사명을 베타는 마음으로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열매 맺음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 열매들을, 글로벌 리더들로 양성하여 세계를 위해 크게 일하는 우리 자녀들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옷사의 죽음 (대상13:1-11) 찬313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이 옮기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옷사를 찢으신 사건은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첫째, 그 나라는 인간의 동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소가 날뛰는 수레에서 떨어지는 법궤의 손상을 신속히 막는 옷사의 행위는 기록을 범하는 무서운 죄였습니다(9-10).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레위 자손인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일인데 영겁결에 취한 행동은 그의 육체성향의 죄

를 나타냈습니다. 고의적인 죄, 짐짓 죄는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수록 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역시 옷사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이 승전에 들며 법궤를 옮길 때 율법을 잊고 팬리주의를 따른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위기를 당하거나 험통한 일을 만날 때 하는 행위가 그의 실상을 보인 것입니다.

화 복 받은 오벰에돔 (대상13:12-14) 찬500장

"에돔의 종"이란 뜻을 가진 세 오벰에돔(대상15:18,24, 16:38, 대하25:24) 중 복을 받은 사람으로 평가된 복을 받은 인물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첫째, 그는 레위가문의 고향 후손으로 문지기였습니다(12-13). 옷사의 징벌소식을 알고 그는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따라 3개월을 모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엘리야의 두 아들은 경솔히 여김으로 정죄를 당했지만 오벰에돔은 다윗이 실패한 일을 떠맡아 겸손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

님의 말씀을 진실로 섬기는 자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 그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14). 짧은 기간 그의 헌신적 봉사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골자입니다. 셋째,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습니다(14). 내적 복은 외적 방편 곧 집, 밭, 가축, 자녀 등이 잘되는 것입니다(창39:1-5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향유합니다.

수 언약궤 중심한 생활 (대상15:1-25) 찬422장

다윗이 왕이 된 후 먼저 언약궤를 옮긴 사건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한 생활을 보여줍니다(1-2). 하나님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를 중심한 생활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법궤 중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시온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권고했습니다(히4:16). 둘째,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생

활을 보여줍니다. 언약궤 안에 놓인 만나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상징물입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계시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줍니다. 셋째, 예배중심한 생활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보좌 앞에서 언약궤의 삶은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경배하는 일은 복중복이며 언약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목 다윗의 언약 (대상16:1-22) 찬405장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습니다(16). 타락한 아담에게 최초로 주어진 은혜언약(창3:15)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다윗으로 이어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둘째, 가나안을 기점으로 주는 언

약입니다(18). 그 언약은 하나님나라 백성의 기업자인 가나안에 세워지는 나라임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셋째, 절대 보호를 받은 언약입니다(19-22).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 손 안에서 보호받는 약속을 바라보고 찬양했습니다. 기쁨부는 자며 선지자인 이스라엘의 장래는 영원한 보장을 받았습니.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언약궤성인 교회의 보호를 가리킵니다(요10:26-29).

금 다윗의 찬양 (대상16:23-43) 찬493장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위탁한 다윗의 찬송은 무엇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첫째, 구속을 찬양했습니다(23). 다윗은 온 백성이 죄사함의 구속을 맞고기 원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그가 신앙에 오실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으로 내다보고 감격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나라를 찬양했습니다(31). 하나님나라로 요약되는 성경의 구속은 여호와 통치하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 형태 안에서 장차

완성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다본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성취된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영광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찬양했습니다(34). 그 구속의 뜻은 성령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자로 요약되는 그 성품을 맞고야 그의 형상으로 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기 위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토 다윗언약의 특성 (대상17:1-15) 찬427장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나타난 은혜언약은 다윗 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자원하는 소원을 통해 세워졌습니다(1-3). 하나님의 주권적 뜻은 사람의 자원의 소원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렬한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빌2:13). 주의 뜻에 맞는 소원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그것은 영원한 왕권을 세울 것입니다(12). 다윗과 세운 언약은 절대왕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솔로몬 왕권을 염두에 둔 것보다 더 근원

적인 것으로 신앙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원한 왕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 언약은 부자관계의 연합으로 표현되었습니다(13).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에는 주종과 군신관계로 나타났으나 여기는 부자관계로 나타났습니다. 훗날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에는 생명을 나누는 연합으로 완성되었습니다(요15:5).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질문이 상호 관련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기독교인을 위한 최고의 선물

- 다니엘 전자성경
- 만나 전자성경

음악: 새로운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해외음반, 진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탈 강대상, 강대상, 교회음향, 선물용품, 시상/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최저한 어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E7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 화면
- 원용액 가운은 연주
- 본체 고정용 스탠드
- USB 호스트 기능
- 오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정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정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엘리성구사
에허드수정강대상
EH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불타오르도록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사용 크리스탈 50인치 4인치
한국산인기타제품으로 제작
EHD Design 크롬 도금(수출용)
대형에수교량(수출용)
지향상(수출용) 선형
타입의 자문은 제작(수출용)
수출(수출용) 등등
수출용(수출용) 등등

역외에도 다양한 목적용의 크리스탈 성구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 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 것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핑몰 www.gospelmail.com

NY 131-01 39th Ave., Flushing, NY 11354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808, 809, 810 (213)447-4011

정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인/터/뷰

최광언 목사 (아르헨티나제일장로교회 담임)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길”

하와이 아가페선교침례교회(담임 이남수 목사) 부흥집회 인도 차 하와이로 향하던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교회 담임)가 지난 8일 잠시 본지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사역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교회는 지구촌 끝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20년이 되던 해에 제가 부임을 했고 다시 23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부여하신 사랑과 성령의 기쁨 부으심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쳐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입을 여는 최광언 목사는 놀라운 교회 부흥의 원인을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1989년 최 목사 부임당시 제일교회는 20살의 청년이었으나 성도 수는 100명 내외였다. 이 교회 7대 목사로 부임한 최 목사는 목회 청사진을 하나님 앞



하와이집회차 엘에이를 방문한 최광언목사부부

32헥타르 위에 세운 브니엘 수양관, 성전 1100명 수용 전인교육 담당 후후이 제일기독교유·초등학교, 대학비전

에 올려놓고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그의 애끓는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케 했다.

제일교회에서 설립한 브니엘 수양관은 남미는 물론 미주지역에서도 즐겨 찾으며 세미나와 집회를 진행한다. 지난 4월에도 브니엘 수양관에서 중남미 선교대회가 개최됐다. 그곳에서 남미 선교사들과 현지인 목자들이 속삭이며 은혜 받고 사역지로 돌아갔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최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좋은 수양관을 주셨는데 가능하면 많은 단체와 성도들과 나누고 싶지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회 온 성도들이 솔선수범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로 더 많이 사용되길 기도 할 뿐입니다”라고 말한다.

32헥타르에 세워진 브니엘 수양관은 호텔을 버금갈 만큼 좋은

자재로 지어진 숙소와 11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브니엘 성전이 있다. 식당 또한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크고 넓게 준비되었으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운동시설과 수영장, 거기에 어울리게 꾸며진 조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 목사가 부임한 후 또 하나의 축복의 열매는 후후이 제일 기독교유·초등학교(담당 김성업 목사)다. 후후이는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꼽히는 곳이지만 이곳 영혼들을 위해 학원사역을 시작했다.

1995년 학교 매입을 위해 최광언 목사는 자신이 먼저 헌신의 분을 보였고 이를 지켜본 성도들도 함께 옥합을 깨며 그 일에 동참했다.

1996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식을 갖고 채플시간과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전인교육을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 학원사역을 축복하셨고 명문학교로

위상을 높여주셨다. 또한 2003년에는 일반학교에서 기독교학교로 재인가를 받았고 또 다른 부지를 구입, 학교를 신축, 확장하여 새롭게 거듭났다.

최 목사는 “온 교우들이 허리를 돌리고 헌신한 결과지요. 그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대학교 설립까지 허락해주시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비전도 귀띔한다.

하와이 집회에 관해 묻자, “이남수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12년 이상 알고 지낸 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문서선교 사역을 해오셨는데 하와이로 이주하셔서 목회에 정진하고 계신분이지요. 이번 설립 27년을 맞아 기도에 더욱 힘쓰고 싶다고 부족한 중을 청해주셨기에 감사하므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라며 “귀한 성회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며 하와이로 향했다.

(이성자 기자)

특/별/기/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전쟁을 선포한 오바마 대통령



New Spirit Movement 상임대표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결혼 합법화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기의 생각이 진화되고 있다고 수차례 말해 왔던 것을 결국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청교도의 나라, 성경을 기반으로 세운 미국을 향한 현직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기독교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정치인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또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의 반열에 있는 국가의 원수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 발언 이후 “용기 있는 걸음”이다.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독일 정부의 이름으로도 환영한다”는 동성애자인 귀도 베스 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의 응원을 이끌어내고, 팡스타 레이디가 가가로부터도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한다”, “그의 결정에서 과

거 아닌 미래가 느껴진다”는 지지 발언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역시 동성결혼 찬성이 이른바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커뮤니티는 물론, 젊은 층의 환호를 이끌어내며 대선 득표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민주당은 동성결혼을 대선전의 주요 전략으로 끌고나갔다고 발표했으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선언 이후 있었던 영화 배우 조지 클루니의 로스앤젤레스 저택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하던 할리우드 ‘큰손’들이 1500만 달러를 오바마에게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신앙 ‘멘토’인 플로리다의 복음주의 목사 조엘 헌터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발표 직후 전화를 걸어와 양해를 구했지만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국의 대통령이 동성결혼 지지발언을 한 것을 가리켜 ‘충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독교를 향한 ‘도전’이요, ‘영적 전쟁’을 선포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더 이상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고 일어나 ‘거룩성 회복’을 위해 전 그리스도인들이 결기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히 개인의 선언이 아닌 국가의 정책과 국민들의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어린 자녀들을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어 미래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음모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거룩한 기도 운동을 벌이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나라 건설’이라는 가치를 들고 거룩한 개혁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스바 대각성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대비하여 저로 하여금 New Spirit Movement를 시작하게 하였고, Holy Life, Holy Family, Holy Nations 운동을 출발시키셨습니다. ‘거룩성 회복운동’에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가페선교침례교회 설립27주년 기념부흥성회

아가페선교침례교회(담임 이남수 목사)가 설립 27주년을 맞아 최광언 목사(아르헨티나제일장로교회)를 초청, 성령부흥성회를 개최했다.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본 부흥성회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에 매 시간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집회로 이어졌다.

본 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남수 목사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오프라넬스 목사(원로/선교목사) 기도, 최광언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 최 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달랐던 두 예배’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 말씀에 불들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자. 참된 믿음은 말씀에 감동받는 것 뿐 만 아니라 반응하여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성도가 되자”고 피력했다.

부흥회 마지막 날인 13일은 아가페선교침례교회 27주년 기념 감사예배로 드러졌다.



아가페선교침례교회 성도들이 최광언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 원내는 본교회 담임 이남수목사.

2012 목회자의 날 기념

성령이 임하시는 절정의 시간!

목회자 부부 영적 각성 세미나

목회자의 영성이 깨어야 성도들이 살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해마다 4000여명이 넘게 참석하는 한국 최대 목회자 부부 세미나!

다이나믹한 기도의 능력과 불붙는 영성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영적 대각성운동의 지도자 윤석전목사!

한국 교회에 복음적인 설교와 영적 부딪듯같은 목회정보를 통해 영성회복운동을 이끌어가는 김향안 목사!

잠든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향한 두 목회자의 처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거운 소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혀 새로운 목회의 세계가 열립니다!!

강사: 윤석전목사, 소강석목사, 김향안목사

일시: 2012. 6. 4(월)~ 6. 7(목)

장소: 수원흰돌산수양관



윤석전 목사



소강석 목사



김향안 목사



수원흰돌산수양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224

▶ 찾아 오시는 길 : 수원역에서 32번, 33번 발인행 버스(당하리 하차) *차량운행 / 흰돌산수양관 입구(당하리) ⇄ 수양관 (월요일 오전 10시~ 오후 6시)

성회등록방법 | 등·록·비·무·료

1. 인터넷등록 | 한국교회정보센터 홈페이지(www.kcdc.net), 혹은 연세중앙교회 홈페이지(www.yonsej.or.kr)를 통해 등록
 2. 인터넷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 전화 1566-3004를 통하여 등록
- * 준비물 |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침구



소용차3대



최신형 노트북



복사기외다수